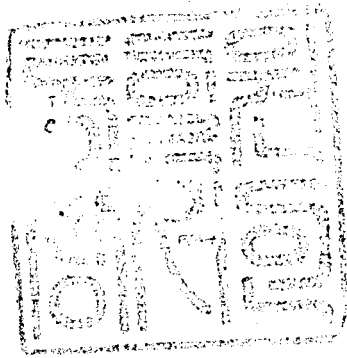


時事資料・第35號

統一教育



統一研修院



北韓動向

■ 對內動向

-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종합 7
- 勞動黨 中央委 제6기 제16차 全員會議 개최 12
- 各道, 직할시 黨全員會議 개최 20
- 최근 共產圈 政情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태도 24
- 金正日 업적 토론회 개최 28
- 『主體의 혈통을 옹호 고수하고 빛내어 가는 우리 黨』내용 분석 34
- 大聖銀行, 「재보증권」 발행관련 분석 36
- 白頭山 일대에 「露天 혁명박물관」 조성 39
- 원산~금강산간 고속도로 및 元山驛舍 준공 44

■ 對南動向

- 남북대화공세 강화 배경과 속셈 49
- 대화전략 「民間級」 대화로 선회 54
- 「全教組」 결성에 편승한 대남선동공세 강화 62
- 「범민족대회」 제의 배경과 속셈 67

■ 對外動向

- 北韓·헝가리 관계 惡化 77
- 岐路에 선 北韓의 對東歐 외교 82
- 최근의 對非同盟 외교활동 88
- 北韓-이란間 경제협력 강화 93

■ 主要動向 日誌

共産圈 및 周邊動向

- ‘고르바초프’ 서독방문 동향 105
- 中國黨 指導部 개편동향 분석 109
- 폴란드, 최초의 非共産聯政 추진동향 117

資 料

-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統一構想과 提議 123
- 이대경 목사 귀환 면담 결과 129
- 임수경 入北관련 문제성 언동 사례 131
- 「해외혁명 지도부」의 實體와 親北·反韓團體 143
- 北韓의 상반기 경제활동 종합 149
- 北韓의 核武器 개발능력 평가 155
- 亞.太地域에 있어서의 새로운 秩序 159
(국제 관계 연구소 주최 제18차 국제학술회의)
- NEW TIMES 「韓半島 情勢」 記事分析 165

北 韓 動 向

對 內 動 向

-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종합
- 勞動黨 中央委 제 6 기 제16차 全員會議 개최
- 各道. 직할시 黨全員會議 개최
- 최근 共産圈 政情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태도
 - 金正日 업적 토론회 개최
- 『主體의 혈통을 옹호 고수하고 빛내어 가는 우리 黨』 내용 분석
 - 大聖銀行, 「재보증권」 발행관련 분석
 - 白頭山 일대에 「露天 혁명박물관」 조성
 - 원산~금강산간 고속도로 및 元山驛舍 준공

對內動向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총합

平壤의 제13차세계청년학생집회가 8일간의 대회일정을 모두 끝내고 8일 막을 내렸다. 이른바 反帝연대성·평화와 친선이라는 구호를 내세운 가운데 지난 7월1일 평양「5월1일 경기장」(능라도)의 개막행사로 시작된 이 집회에는 170개국에서 온 2만여명 대표들이 참가했다고 北韓방송들이 주장했다. 이 집회는 지난 47년 2월 체코 프라하에서 첫 대회가 열린 이후 東洋에서는 최초로 열린 대회이며, 주최국인 北韓이 88서울올림픽의 컴플렉스를 씻어보기 위해 힘겨운 부담을 안고 유치했다는 점에서 내외의 관심을 모았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 980불이라는 나약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게다가 이제까지 地球上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에서 그것도 세계각국의 잡다한 인종들이 한자리에 모여든 세계적 규모의 축전마당을 벌였다는데서 더욱 시선을 집중시켰다.

시기적으로도 中·蘇냉전구조가 완화된 가운데 東歐공산국가들의 개혁·개방波高가 고조되면서 北韓의 외교적 고립화가 심화되고 이웃 중국에서는 거센 민주화돌풍이 일어난 직후에 평양집회가 개막되었다는 점에서 집회결과를 주목케 하는 요인이 되었다.

1일 저녁 7시 15만명의 군중을 수용한「5월1일 경기장」에서 진행된 개막식광경은 하나의 거대한 정치선동 쇼를 방불케 했다.

북한선전기관들에 의해 생중계된 가운데 개막식에는 金日成과 金正日을 비롯해 「명예손님」으로 초대된 니에레레 탄자니아대통령, 무가베 짐바브웨대통령, 시아누크 前캄보디아주석등이 참석했다. 제12차집회를 개최한 蘇聯대표단을 선두로 170여개국 대표단 2만명이 입장했다. 맨 마지막 순서로 北韓대표단의 뒤를이어 제3국을 통해 밀입국한 임수경양이 全大協대표자격으로 입장할때는 金日成과 金正日이 자리에서 일어나 답례까지해 이번 평양집회의 「비상카드」로 등장시킨 임양에 대한 관심도와 기대를 증폭시켰다. 개막식은 평양집회의 조선준비위원회 최용해위원장의 환영연설에 이어 국제준비위원회대표 모하메드 살라아미의 개막연설, 「시대의 선구자가 되자」라는 金日成의 축하연설이 있은후 축하공연이 벌어졌으며 행사장 밖에서는 주체사상탑에서부터 「5월1일 경기장」까지의 시위행진과 대동강변의 뱃놀이·해양모범출연등이 진행됐다. 그러나 이러한 축하의식이 진행되는 첫머리부터 평양집회의 불미스런 소동들이 잇달아 이어졌다.

세계각국에서 몰려든 취재팀들은 평양집회에서 일어난 북한의 인권위반과 중국정부의 민주화운동 유혈탄압을 앞다투어 외신을 통해 타전했는데, 한 예로 金日成의 축하연설도중에는 덴마크대표들중 3명이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난하는 깃발을 내걸고 경기장을 돌았다. 또한 이탈리아대표단은 북한이 중국정부의 민주화운동 유혈탄압을 지지한데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머리띠와 티셔츠를 입고 등장한데 이어 노르웨이대표단은 「중국학생들과의 유대」라고 쓴 대형깃발을 들고나와 개막식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개막식에 이어 2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평양집회행사는 예정대로 정치·문화예술·체육행사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이 가운데 정치행사프로그램이 83%나 차지해 정치적 편향 행사임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문화행사는 전체행사의 16%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주로 각국 청년대표들간에 문예활동경험과 세계문화발전 10개년계획이라는 문화토론회가 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된 것을 비롯, 아동특별프로회의 (2일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교육과학기술센터 (2일 金日成종합대학) 등이 진행되었으며 장충성당·봉수교회등에서는 종교인들의 신앙간담회와 예식등이 진행되기도 했다. 특히 문화행사중에는 「金正日따라 배우기운동의 성과경험발표회」라는 것까지 진행해 각국대표들로부터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나온 프로그램」이라는 嘖嘖을 받기도 한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체육행사로는 각국대표들간에 축구·배구·농구·탁구등의 친선경기와 함께 낙하산시범경기등 이른바 국방체육종목들이 각 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체육행사의 특이행사로는 3일 평양개성문을 출발, 칠성문거리, 승리거리를 거쳐 김일성광장에 도착하는 약 9km구간서 진행된 「21세기로의 달리기」행사가 있었는데 이 행사에는 全大協대표자격의 임수경양도 참가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같은 기본행사들을 치루는 한편으로 평양시내의 공원과 유원지들에 설치된 야외무대에서는 북한예술단들이 예술공연을 진행하는 한편으로 민속 및 전통음악축전, 국제교예 및 예술축전, 국제미술창작실 개관모임, 국제무용 및 무언극축전 등이 개막됐는데 이들 행사들은 거의 대부분 소위 反帝연대성을 주제로한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다.

문화행사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은 국제예술축전에는 90여개 대표단이 참가, 3백80여종목의 공연, 7백여종목의 음악·무용·교예작품들이 무대에 올려졌고 1백50여편의 영화와 9백여종의 예술작품이 상영·전시됐다.

이밖의 평양집회를 계기로 북한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집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들도 선보였다. 7일 金日成경기장에서는 주최국행사의 일환으로 평양시 평양학생 5만여명이 동원된 가운데 「오늘의 조선」이라는 제목의 매스게임이 펼쳐졌고 북한의 미술가 1백여명은 50여개의 집회행사장들의 갖가지 풍물과 모습들을 현장스케치한 미술작품을 창작소개했다.

또한 평양대동교와 옥류교 사이에 띄운 배(船上)무대에서는 만수대창작사등 28개 단체에서 조선화·수예·공예품·조각품등 3천여종의 23만여점을 출품한 「공예미술작품전시회」를 열었고 평양 역포구역의 동명왕릉에서는 고려시대 民俗을 보여주는 민속놀이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최국행사들은 한결같이 北韓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나 金日成父子를 신격화하는 내용들이 主流를 이루고 있어서 외국인들로부터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위 反帝연대성의 기치를 내걸고 시종일관 평양집회를 주도했던 정치행사에서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反美·反韓선전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특징을 보였다. 정치행사는 2일 평양인민대학습당에서 「평화·군축·핵무기없는 세계안전센터」등 8개의 토론센터를 개막, 주제별 분과토론회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본격 가동되었다. 이 정치프로그램 개막회의에

서는 평양집회 국제준비위 상설대표 안드레이 모르조프와 북한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위원장 이몽호등이 연설을 했으며 이들은 세계평화를 위해서 청년학생들이 反戰·反核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일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주한 미군의 철수를 주장했다.

「블럭불가담센터」에서는 주로 비동맹운동의 이념과 근본원칙 및 이의 통일과 단결,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방향과 과업이 토론되었으며 「反帝재판소」에서는 최고 15명이 등장, 美國을 비롯한 西方자본주의국가를 비난하는 내용의 연설과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이들 정치행사프로그램에서는 소 주제별로 인권문제, 인종분리정책, 反核, 오존층과괴등 2백여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특히 「평화·군축·핵무기없는 세계안전센터」제4분과회의에 참가했던 임수경양은 南北대화의 공전이 주한미군 및 팀스피리트훈련 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在日동포인 한 피폭자가 경험담을 발표할때 방청하던 金日成大學의 학생은 『남한에 美제국주의자가 들어온 핵병기의 위협이 눈에 보이는듯 하다』는 식으로 애써 反美선전을 벌여 토론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北韓은 이처럼 정치행사를 통해 對韓·美성토에 열을 올리는 한편으로 對南비상카드로 이용하기 위해 한국의 「全大協」과 연계, 밀입북시킨 임수경양을 앞세워 대대적인 對南평화공세를 펼쳐 주목되었다. 北韓의 임양의 밀입북을 『영웅적인 행동, 애국적 소행』운운으로 찬양하여 평양집회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北韓통일노선을 지지케 하고 反韓·反美투쟁을 선동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北韓의 정치적 立地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北韓은 임양의 밀입국을 계기로 對南평화공세를 극대화하기 위한 갖가지 정치선동쇼를 전개했는데, 예컨대 평양집회 개막식에서 임양이 입장할때 金日成이 기립박수를 보낸 사례라든가, 7월20일부터 27일까지 이른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평화대행진을 벌이기로 하고 7월9일부터 평양에서 각국 집회 참가대표들로부터 이에대한 지지서명작업까지 전개하였다.

또한 7월7일 평양에서는 北韓학생위원장 김창룡과 임수경양이 8개항으로 구성된 「남북청년학생공동선언문」을 채택, 발표하기도 했다. 이 선언문은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투쟁전개, 두개한국정책 반대, 당국의 대화창구일원화 배격, 오는 95년까지 통일위업실현등 주로 종래의 北韓통일노선을 그대로 재확인한 것이며 이는 곧 北韓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범민족대회」실현을 위한 통일전선책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듯 北韓의 조국평화통일위원장 許鎔은 9일 「해외동포들의 조국통일촉진대회」연설을 통해 『1990년대에 들어서서 첫해이며 조국해방45돌이 되는 해인 1990년 8월15일에 판문점에서 북과 남, 해외동포들과 조국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를 소집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北韓은 또 이를 위해 해외친북동포들로 구성된 「조국통일촉진대회 공동준비위원회」를 결성, 在日조총련부의장 서만술과 「조국통일북미주협회회장」양은식을 공동의장으로 선출하는등 통일전선 공작을 본격화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北韓은 이처럼 냉전유산으로 퇴색되고 있는 反帝自主를 위한

공동투쟁과 공산권국가들의 결속을 다짐하기 위한 당초의 평양 집회가 결과적으로 反美·反韓투쟁에 초점을 맞춘 정치적 목적의 행사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나름대로는 『성공적인 대회로 되었다』고 自讚했다.

8일 폐막식에서는 「세계5대륙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낭독에 이어 평양축전 조선준비위원장 최용해의 연설이 있었다. 최는 연설에서 평양집회가 『세계진보적 청년학생들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한 뜻깊은 사변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이와는 달리 中·蘇의 반응은 오히려 극히 냉소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中國은 대표단규모를 절반으로 축소, 파견했는가하면 蘇聯은 평양집회가 「너무 비싼 조치」였으며 『비도덕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사』였다고 비판적 견해를 표명했다. 또한 평양집회를 보도한 외국기자들은 北韓이 이번 행사를 위해 45억달러를 들여 2백 60개의 시설물을 새로 만들고 1천대의 벤츠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능력의 한계를 넘어 막대한 비용을 쏟아넣은 결과에 대해 한결같이 부정적인 시각과 불미스런 사태들을 표출시켰다.

결국 北韓은 지금까지 두꺼운 베일속에 가려져왔던 그들사회의 극단적인 人權제한, 폐쇄성과 시대역행적 개인우상화체제의 모순을 克明하게 표출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면서 外華內貧의 행사치례를 마감한 것으로 볼수 있다.

勞動黨 中央委 第6기 第16차 全員會議개최

1. 一般事項

- 北韓은 '89. 6. 7 - 6. 9 朝鮮 勞動黨 中央委員會 第6기 第16차 全員會議를 개최하고 『黨의 輕工業 革命 방침을 관철하여 人民消費品 生産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를 議案으로 토의하였음. ('89. 6. 10, 중·평방 보도)
- 同 議案은 黨中央委員會 秘書 박남기가 報告하고 金日成이 직접 사회를 맡아 최종 결론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회의결과 「輕工業 發展 3個年 計劃」의 樹立과 집행에 대한 黨의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보임.
- 금번 회의는 시기적으로 금년 7月の 평양청년학생축전, 내년으로 예상되는 제7차 黨大會 등을 앞두고 개최되었다는 점과 현재 3차7개년계획(1987-1993)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소비품 增産問題를 議題로 채택한 점에 특별한 意義를 부여할 수 있음
- 특히 중앙과 지방의 黨 및 행정·경제기관 업무담당자, 공장·기업소 지배인과 黨비서들이 방청하는 가운데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경공업 발전에 대한 黨의 의지를 전 주민에게 선전·선동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임

2. 輕工業 發展을 위한 政策方向

- 北韓은 이번 회의를 통해 「輕工業의 劃期的 發展」을 현시기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규정하고 「輕工業 發展 3個年 計劃」의 樹立과 집행을 위한 黨의 방침을 제시하였음
- 輕工業 發展을 위한 정책 방향은
 - 첫째, 향후 2-3年동안 輕工業部門에 투자를 집중, 종합적기 계화, 자동화, 전산화를 적극 실현함으로써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 둘째, 향후 2-3年内에 輕工業 製品의 質을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제품을 다양화하고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임.
-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화학공업부문 투자확대, 경제조직 및 黨의指導事業 개선강화, 輕工業 科學研究事業을 강화하고
- 대외적으로는 輕工業部門의 현대화 및 수출산업화를 위해 외국과의 加工貿易, 合營·合作 및 科學技術交流·協力을 적극 推進한다는 것임
- 특히 생필품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織物 15億m(1993년) 食料品 加工 3.2倍(數年内), 日用品 生産 1.5倍(數年内) 등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기초생필품의 생산증대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음

3. 輕工業 發展策 推進背景

가. 政治的 側面

- 내년에는 北韓이 7차 黨大會란 최대의 政治行事를 치루어야 할

16 統一教育

시점이며, 黨大會가 개최될 경우 가장 중요한 과업은 金正日 權力承繼의 마무리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금년 7월의 「평양축전」은 北韓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88서울올림픽의 성과를 稀釋시키기 위한 국제적 정치선전장으로 준비중에 있어서 이의 成敗가 북한 대내정치상황에 미칠 영향은 至大할 것임
-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7.7 宣言」이후 韓國의 적극적인 對北政策과 북방외교의 진전 등으로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을 무기한 거부할 수 만은 없는 여건에 처해 있음
- 한편 최근 韓國의 情勢는 노사분규의 深化, 勞學連帶鬪爭등 사회혼란이 장기화됨으로써 北韓으로 하여금 民衆革命의 환상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소비생활 落後에서 야기되는 북한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당면과제의 해결이나 南朝鮮 赤化革命戰略이 사실상 불가능함은 물론 體制維持 자체가 위협을 받는 처지에 있음.
- 이상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금번 黨中央委 全員會議에서는 3차7개년계획을 수정, 주민소비품 증산을 위한 긴급대책 수립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經濟的 側面

- 北韓은 경제건설 초기부터 중공업 발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노선으로 추구해 왔음

- 따라서 한정된 자원과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경공업부문 투자는 항상 輕視될 수 밖에 없었으며 인민소비품 생산은 대부분 中·小規模 지방 산업공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음

※ 重工業 對 輕工業 投資 比重

期 間	重 工 業	輕 工 業
5개년계획(1957 - '60)	83%	17%
7개년계획(1961 - '70)	79%	21%
6개년계획(1971 - '75)	83%	17%

- 그 결과 북한경제는 산업구조 불균형의 深化, 경제성장 둔화, 생필품 부족 등 주민 불만요인이 증대 되었음은 물론 中·蘇와 마찬가지로 對外開放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졌음
- 北韓은 이러한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1984년부터는 金正日 主導下에 「輕工業 革命」, 「人民奉仕 革命」등의 구호를 제시, 생필품 增産을 督促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合營法」을 발표 ('87.9)하여 西方의 자본·기술 도입을 추구하고 1986년에는 「8·3 인민소비품 生産增大」운동을 개최하였음
- 그러나 北韓은 1987년부터 시작된 제3차7개년계획의 추진과 「평양축전」 준비를 위한 기본건설에 주력함으로써 인민소비품 부족 현상은 가중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임
- 金日成은 금년도 新年辭를 통해 1989년을 「輕工業의 해」로 설정하였고, 한편 금번 회의에서는 『輕工業 發展을 통한 住民생활 향상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내세워 「輕工業 發展 3개년 계획」의 추진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분석됨

4. 展 望

- 금번 會議에서 「輕工業 發展 3個年 計劃」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상 현재 추진중인 제3차7個年計劃('87 - '93)의 修正을 意味함.
- 「輕工業 發展 3個年 計劃」은 國家計劃委員會에서 구체화한 후 1990년부터 착수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평양축전」개최시까지 모든 力量을 총동원하여 주민소비품 생산에 주력, 소비품 공급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임
- 北韓은 6月中 노동자들에게 2개월분 생활비의 100%를 特別賞金으로 지급한다는 중앙인민위원회 政令 採擇('89. 5. 18)
- 北韓이 향후 3年間 輕工業部門에 投資를 집중할 경우, 현재 추진중인 3차7個年計劃의 중공업분야 목표달성은 차질이 초래될 것이 확실시 됨
- 그러나 장기적인 면에서는 경공업 발전을 통한 산업구조 조정으로 성장잠재력이 강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임
- 한편 北韓이 경공업 발전을 통해 주민의 소비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경우 북한은 對外開放化나 남북교류·협력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참고 ▶

회의내용에 관한 보도자료 요약

1. 경공업부문 발전성과

- 黨은 창건 첫날부터 인민생활 향상을 黨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내세워 중공업발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 발전을 경제건설 기본노선으로 추구해 왔음
- 인민소비품 생산에 있어서는 대규모의 中央工業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행 발전시킨다는 방침하에 지방 산업공장건설 투쟁에 균중적 운동을 전개, 위력한 중앙 경공업과 지방공업을 일떠 세웠음
- 黨은 인민소비품 수요가 높아지는 현실적 요구에 맞추어 경공업 革命 방침을 제시하고 8·3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생산증대에 획기적 전환을 이룩하였음
- 그 결과 방직, 식료품 가공, 신발, 일용품 공업 등에서 主體的이며 종합적인 인민소비품 생산기지가 건설되었음

2. 당면과업 및 추진방향

- 現時期 경제건설에서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경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 것으로 보고 「경공업 발전 3개년계획」 작성에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음
- 경공업 발전의 중심과업은 이미 마련된 경공업 토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현대화를 다그쳐 인민소비품에 대한 수요를 더욱 원만히 보장하는 것임

20 統一教育

- 향후 2-3년간 경공업부문에 투자 집중, 종합적 기계화, 자동화, 전산화 적극 실현
-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제품의 多樣化와 품질 향상임
 - 향후 2-3년내 경공업 제품 質을 세계 수준화
- 경공업의 원료, 자재 보장을 위한 선결조건은 화학공업부문의 발전임
 - 화학섬유, 염화비닐, 폴리에틸렌, 염료, 화학세척제의 증산과 순천비날론공장 조속 완공
-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민소비품 생산 전환의 중요한 담보임.
 - 과학연구사업의 主體 확립, 경공업 과학연구기지 조성, 국제적 과학기술 교류사업 적극 추진.
- 경제조직사업 및 경제관리 개선은 경공업 발전과 인민소비품 증산을 위한 중요한 요구임
 - 「경공업 발전 3개년 계획」의 정확한 수립
 - 생산지도와 기술관리, 설비관리, 자재관리, 노력관리, 재정관리의 규범화
 - 경공업부문 수출기지 조성, 가공무역과 合營·合作 조직을 강화함
- 경공업부문에 대한 黨의 指導를 강화함
 -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려는 黨의 구상과 의도를 근로자들에게 선전
 - 군중 정치사업 강화

3. 경공업 분야별 과업

구 분	내 용
방직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직설비의 현대화, 고속도화로 1993년에 15억m 직물 생산고지 반드시 점령 (설비 현대화·고속도화) ● 자체 섬유인 비날론 직물생산의 다양화 및 품질제고(옷차림의 비날론화) ● 편직공장 생산능력 확대, 인견 편직물 비중 증대 (옷차림의 편직화) ● 의복 연구사업 강화 및 가공기술 향상 (제품의 다양화)
신발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발의 질적구성 개선, 신발생산의 과학화
식료가공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해사이에 식료 가공품 생산을 3.2배로 증대 ● 옥수수 건식가공방법 완성, 콩 가공식품 증산 ● 청량음료와 기호식품 증산 ● 감미료, 식료색소, 식료향 등 증산
일용품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해사이 일용품 생산 1.5배로 증대 ● 중요 일용품 생산공장에 원료, 자재 집중공급 및 생산 전문화 ● 공장·기업소에 생필품 공장, 직장, 작업반 조직강화 투쟁 전개 ● 8·3인민소비품 생산 장려

各道·직할시 黨全員會議 개최

報 道 內 容

- 8月 13日부터 各道·직할시 黨委員會에서는 일제히 全員會議를 개최하였음.
- 全員會議들에서는 金日成이 黨中央委員會 제6기 제16차 全員會議에서 한 敎示와 全員會議 결정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토의하였고,
- 방직공업, 신발공업, 식료가공공업, 일용품공업을 발전시켜 여러가지 생활필수품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인민소비품 생산을 적극 장려하여 다양하고 質 좋은 일용품을 생산할데 대한 문제들이 중요하게 토의됐음
- 또한 輕工業 原料增産과 함께 기술역량과 물질적 잠재력을 적극 동원하여 경공업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며 표준공장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黨組織들이 경공업부문에서 思想, 技術, 文化의 3大革命을 더욱 힘있게 벌이도록 조직 정치사업을 강화하며 黨의 경공업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革命性, 黨性, 노동계급성, 人民性을 높이 발양하도록 해야 함.

(中放, '89.8.13)

評 價

- 이번 에 개최된 道·직할시 黨全員會議는 지난 1月 下旬 일제히 개최된 이후 7개월만에 또다시 개최된 것임.
- 各道·직할시 黨全員會議는 中央黨 全員會議가 개최된 후 中央黨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통상적인 집회임.
- 금번 全員會議의 決議內容은 지난 6月 개최된 黨 6기16차 全員會議에서 決議한 「人民消費品 生産增大」방침에 따라 경공업 발전을 통한 인민소비품 생산을 장려하는데 있음.
- 北韓은 최근 각급 사회단체의 全員會議 개최에 이어 地方黨의 全員會議를 개최, 黨 方針 관철과 조직강화·사상교양 강조등을 내세우고 있는 바, 이는 「평양축전」이후 각급조직의 활성화와 사상무장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평양축전」으로 부진했던 경제 과업의 성과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
- 이와 같은 움직임을 볼 때 당분간 北韓에서는 各級 사회단체·勞動黨 뿐 아니라 공장·기업소·하급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各級 集會가 계속 개최될 것으로 전망됨.

최근 共產圈政情에 대한 北韓의 立場과 태도

北韓은 최근들어 공산권국가들에서 계속 확산일로에 있는 민주화 또는 개혁바람의 北韓내부유입 가능성에 대비,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北韓의 이같은 안간힘을 참혹한 유혈진압으로 막을 내린 최근 중국의 민주화요구시위 사태를 비롯해 폴란드·헝가리등 공산권국가들에서 날로 확대되고 있는 일련의 반체제 또는 脫사대주의적 소요사태들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태도 또는 반응등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공산권국가들을 휩쓸고 있는 이같은 민주화 또는 개방화물결에 대해 北韓이 보여주고 있는 일관된 태도는 우선 사태 또는 사건자체에 대한 철저한 함구내지 묵살이다. 그다음 단계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같은 상황의 北韓내부 전파 또는 유입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사태 또는 상황전개의 본질은 일체 외면한채 그들의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측면만 부각시켜 이를 철저하게 매도함으로써 진실을 왜곡내지 호도하는데 주력한다.

北韓의 이같은 태도는 공산권에서의 민주화열기가 결코 그들 체제 유지 또는 내부 결속·통제에 이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같은 바람의 내부유

입 또는 전파로 인한 혼란과 사상적 동요현상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에서 비롯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민주화요구시위사태와 多黨制의 과감한 도입등 헝가리의 정치개혁추세에 대해 보여준 반응 또는 태도등은 北韓의 입장을 그대로 나타낸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지난 4월중순부터 대규모 시위사태로 확산되기 시작한 중국 국민들의 민주화요구투쟁이 마침내 강경파의 무자비한 유혈진압으로 막을내린 50여일간의 숨가쁜 상황급변에서도 北韓은 6월초순에 이르기까지 끝내 함구로 일관했다.

그러다가 6월 11일에야 로동신문을 통해 처음으로 중국사태에 대해 언급했는데 사태의 본질은 전혀 외면한채 엉뚱하게도 미국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했다. 즉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와 무자비한 유혈진압, 그 과정에서 보여준 강경·온건파의 치열한 권력투쟁 등 사태진전및 상황변화, 본질적 문제등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설명없이 「요즈음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얼버무리면서 오히려 유혈진압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대신 유혈진압을 비난한 미국에 대해 화살을 돌려 『어떤나라에서 무슨일이 일어나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가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할 내부분제』라느니 『사회주의를 헐뜯고 瓦解시키려는 오만무례한 책동』운운으로 비난하는데 열을 올렸다.

그후 중국사태에 대해서 일체 거론이 없다가 중국공산당 총서기에 江澤民이 선임된 다음날인 6월25일 金日成 이름으로 축하전문을 보내 권력장악에 성공한 중국의 강경新지도부에 대한 지지입장을 재빨리 공식확인하는 기민성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사태에 대한 北韓의 공식적인 견해와 평가는 7월

1일자 로동신문에 실린 중국공산당창건 68주년기념 논설에서 처음으로 언급 됐다고 볼 수 있다. 北韓은 이 논설에서 중국의 민주화요구시위사태를 「반혁명 暴亂」으로 매도하면서 이를 「성과적으로 분쇄」한 중국의 처사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 논설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중국인민은 당의 영도밑에 최근 반혁명暴亂을 견지하고 개혁과 개방을 심화시키면서 현대화된 사회주의 중국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고 있으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전국의 정세를 가일층 안정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은세계의 이목과 관심을 집중시킨 중국국민들의 대규모 민주화요구시위사태를 보고도 전혀 모른채 함구하던 북한이 「…요즈음 중국에서 일어난 일」운운으로 운을 뻔뒤 20여일만에 이를 「반혁명 暴亂」으로 규정하고 나서기까지의 과정에서 북한 당국이 받았던 충격과 당혹이 어느정도 심각했는지는 쉽게 짐작이 가는 일이다.

물론 북한이 중국당창건기념일을 계기로 이처럼 「반혁명 暴亂」으로 매도하고 나선것은 신임당총서기 江澤民에게 보낸 축전에서 강경파 新지도부에 대한 지지입장을 표명한것과 같은 맥락에서, 쌍방간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함께 최근 공산권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개혁·개방화정책추구, 그리고 민주화 또는 자유화물결이 그들 내부에 전파 내지 유입되는 것을 막는다는 한계가 있으며 어차피 그 여파가 미칠것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이에 대비해 그 파급영향을 최소화 해보려는데 더욱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 제도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이를 붕괴시키고 있는 이같은 민주화 요구 또는 개방·개혁바람이 그들내부에 유입될 경우 사상적 혼란과 갈등현상이 심화되고 나아가 체제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될지도 모른다는 인식 아래 이같은 惡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사태를 「반혁명 暴亂」으로 규정, 매도함으로써 사상적 동요를 억제하려는 對주민 경고적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北韓의 이같은 계산은 최근의 헝가리 정치개혁에 대한 강력한 비난태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지난 6월28일 北韓은 당기관지 로동신문을 통해 헝가리가 『사회주의 원칙에서 이탈하여 반혁명분자들의 책동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물론 北韓의 이같은 비난을 헝가리가 최근 多黨制를 도입하는등 정치적으로 과감한 민주화개혁을 실현하고있는 사실과 함께 한국과의 관계개선등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다. 그런데 여기서도 北韓은 헝가리의 그같은 정치적 민주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채 「헝가리에서 벌어지는 심상치 않은 사태」라고 얼버무리는 가운데 이를 「사회주의 이탈행위」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 중국사태에 대한 인식과 같은 맥락에서 北韓이 최근 공산권의 개혁·개방정책추진과 민주화바람의 그들 내부유입에 따른 파급영향을 견제 내지 최소화하려는 사전경고적 제스처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이같은 태도와 함께 폴란드의 정치사회적 개혁, 민주화 조치등에 대해서 끝내 함구하고 있는것도 결국 내부파급을 원치 않는 北韓의 입장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金正日업적 토론회 개최

北韓은 최근 일련의 연구토론회를 개최하여 각 분야에서의 金正日 「업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등 金正日의 통치능력을 과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北韓은 지난 6월10일 金正日이 金日成의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처음으로 黨건설분야에서의 金正日 「업적」에 대한 연구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경제건설분야(13일), 사상이론분야(15일) 연구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金正日의 「탁월한 업적」과 「영도력」선전에 열을 올렸다.

北韓은 그동안 金父子의 개인우상화 또는 주요 정책의 홍보 등을 위해 對주민선전활동이 필요할 때마다 事案별로 연구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그러나 北韓이 지금까지 연구토론회를 對주민선전활동의 한 방편으로 이용해오긴 했으나 개인의 「업적」을 부각시키려는 목적에서 연구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金日成에 局限해서만 실시해 왔을뿐 金正日과 관련해서는 생일이나 金正日에 의해 발표된 것으로 선전되는 「문헌」들의 발표기념일을 기해 이른바 「문헌연구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전부였다.

따라서 北韓이 이번에 金正日의 업적을 선전하기 위한 연구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최근 金正日후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金正日의 지도자적 자질을 과시하는데 주력해온 일련의 움직임에 비추어볼때 앞으로 金正日의 통치능력을 부각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선전활동을 전

개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北韓은 金正日이 후계자로 공식등장한지 9년여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후계자체제를 완전히 구축하지 못한데다가 최근 金正日개인의 지도자적 자질에 대해서도 강한 회의론을 제기됨에 따라 金正日의 통치능력을 과시하는데 주력해 왔다. 그 대표적인 例로서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6개월여의 기간동안 무려 10여편의 「金正日문헌」을 새로이 발표하고 이를 통해 金正日의 사상·이론가적 자질을 선전해온 점을 들수 있는데 이번에 개최된 金正日의 「업적」에 대한 연구토론회들도 이러한 형태의 확대·강화의 한 현상으로 관측되고 있는 것이다.

6월10일 2·8문화회관에서 김국태(당부장)·황순희(조선혁명박물관 당비서)등 당간부양성기관 책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당건설 「업적」에 대한 연구토론회에서는 金正日이 사상·이론활동과 혁명실천을 통해 金日成이 창시한 黨건설사상과 이론을 독창적인 원리들과 명제들로 발전시켜 이를 빛나게 구현했다고 주장, 金正日이 金日成의 黨건설사상과 이론을 계승·발전시켰음을 강조하면서 이 분야에서 金正日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으로 『全黨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여 노동계급의 혁명적 黨건설의 질적 방향과 목표를 역사상 처음으로 밝힌 것』·『黨건설사상이론을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해 새롭게 전개하고 체계화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金正日의 사상·이론가적 면모와 「영도적 현명성」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金正日동지께서는 全黨 주체사상화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

끌어 나가시는 위대한 영도자이시다』, 『친애하는 金正日동지는 혁명과 건설에서 당의 영도적 역할을 높이도록 현명하게 이끄시는 위대한 영도자이시다』, 『친애하는 金正日동지께서 우리당 사상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등의 제목으로 토론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6월13일 인민경제대학에서 윤기복(중앙인민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장식(인민경제대 제1부총장), 이자방(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김응상(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등 주요 경제정책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경제건설분야에 대한 「업적」연구토론회에서도 北韓은 金正일이 金日成에 의해 창시된 경제건설사상과 이론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켰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리고 경제건설분야에서의 金正일의 주요 업적으로는 · 사회주의 · 공산주의의 물질 · 기술적 토대를 민족경제가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쌓을데 대한 이론을 심화 · 발전시키고 全面的으로 체계화한 것 · 경제건설에 균중을 동원하는 주체의 경제이론을 보다 심화 · 발전시키고 주체의 경제관리체계와 방법을 옹호고수하고 사회주의 제도의 본성에 맞게 더욱 심화 · 발전시킨 것 ·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 전환을 마련한 것 · 전력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과 교통운수부문의 물질 · 기술적 토대를 확대 · 강화한 것 · 金日成의 자연개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 발전시킨 것 · 「우리식」대로 경공업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원칙을 견지한 것 등이 제시되었다.

이날 연구토론회에서는 · 「친애하는 金正日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경제건설사상과 이론을 옹호고수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

가시는 위대한 사상·이론가이다」·「친애하는 金正日동지는 경공업혁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나가시는 탁월한 영재이다」·「친애하는 金正日동지께서 인류건축사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등이 토론제목으로 상정되었던 것으로 北韓방송이 전했다.

특히 北韓은 최근 건설된 산업시설과 대규모 건축물들이 모두 김정일의 구상과 지시에 의해 건립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경제 건설분야에서의 金正日의 주요 업적으로 선전했다. 경제분야와 관련한 金正日의 업적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열린 13일 黨기관지 노동신문은 金正日을 「창조와 건설의 傑出한 영도자」라고 지칭하며 북한이 이른바 「대기념비적 창조물」이라고 자화자찬하는 平壤의 창광거리 · 문수거리 · 광복거리 · 주체사상탑 · 인민대학습당 · 만수대의사당 · 「5월1일경기장」(능라도 경기장)등이 모두 金正日의 「세련된 영도」의 부산물이라고 강조, 경제건설에 대한 金正日의 지도능력을 과시했다.

그리고 북한은 6월15일 平壤 인민문화궁전에서 당비서 許鎔 · 최태복, 노동신문 주필 현준극,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 平壤市黨責 최문선, 사회과학원 부원장 김화중등 黨·政·學系의 사상·이론가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金正日의 「위대성」과 혁명업적」에 대한 중앙연구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金正日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로 北韓이 자주·자립·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등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등 각 분야에서 金正日이 「불멸의 업적」을 남겼다고 주장하면서 전체 주민 및 당원들에게 『대를 이어 주체조선의 예와 존엄을 빛내어 나가는 참된

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완성에 대한 친애하는 金正日동지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번 중앙연구토론회는 토론회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앞의 두 토론회보다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격을 높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용면에서 볼 때 앞의 두 토론회가 黨건설과 경제건설분야에 국한해 金正日의 「업적」을 논한데 비해 이번 토론회에서는 金正日 개인의 「위대성」선전과 「혁명업적」을 연계시키기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토론회에 제기된 토론제목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北韓방송들에 의하면 이날 토론회에서는·「친애하는 金正日동지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영도로 주체조국을 빛내어 나가시는 위대한 영도자이시다」·「친애하는 金正日동지께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 사회주의 대건설에서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친애하는 金正日동지께서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찬란한 개화기를 펼쳐주신 현명한 영도」·「당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드는 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이번에 개최된 일련의 金正日업적 연구토론회는 몇가지 점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金正日의 「업적」이라는 것이 모두 金日成의 사상과 이론, 그리고 「영도력」을 계승·발전시켰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북한이 金正日 개인우상화를 조작하면서 취해온 일련의 행태와 일맥상통하

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면에서 볼 때 최근 수년동안 북한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통치행위가 金正日의 「업적」으로 선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겠다.

둘째는 일련의 이번 토론회가 불과 며칠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난해 연말부터 금년 상반기까지의 6개월여의 기간동안 金正日에 의해 썩여졌다고 주장하는 「金正日문헌」을 대거 발표하고 이를 통해 金正日을 「위대한 사상·이론가」로 선전했던 것과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선전방식은 최근 일부에서 金正日의 통치자적 자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과 연결시켜 볼 때 金正日후계체제구축에 필요한 金正日의 통치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북한이 채용하고 있는 상징조작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째는 黨건설사업과 혁명위업에 대한 金正日의 업적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北韓사회가 노동당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되고 있다는 점에서 金正日에 의한 黨의 지배를 보다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北韓은 앞으로도 金正日 개인에 대해 보다 강도높은 카리스마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對內外的 여론선전을 강화함으로써 金正日후계체제를 확고히 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내외통신 645호, '89.6.23)

**『主體의 혈통을 옹호 고수하고
빛내어 나가는 우리黨』 내용분석**

論 說 要 旨

가. 金日成 讚揚

- 黨의 血統은 金日成의 革命思想과 業績
- 『黨의 血統은 金日成 동지께서 마련해 주신 주체의 血統임.』
- 『주체의 血統은 金日成 동지의 사상과 이론, 혁명업적과 투쟁 경험이며, 수령님식 사업방법임.』

나. 金正日 讚揚

- 主體 血統의 純潔性 保障
- 『黨의 血統은 온갖 이색적이며 반혁명적인 요소들과의 투쟁속에서 그 순결성이 보장됨.』
- 『金正日 동지께서는 全黨的인 투쟁으로서 黨의 血統에 오가잡탕을 뒤섞어 놓으려던 온갖 이색적 사상조류를 극복 청산하도록 하므로써 주체 血統의 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함.』
- 金日成 革命思想의 發展 豐富化
- 『血統의 내용은 수령의 지위를 계승한 후계자의 지도밑에 발전 풍부화되면서 굳건히 다져지며 튼튼히 고수되어 나

감』

- 『金正日동지의 정력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에 의하여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보물고는 새로운 사상이론적 재부들로 가일층 발전 풍부화되었으며, 우리시대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더욱더 확고히 전환되고 있음.』

(勞動新聞論說, '89. 8. 17)

分析 및 評價

- 全體的 內容構成이 金日成과 金正日父子 讚揚으로 되어 있는 『주체의 혈통을 옹호 고수하고 빛내어 나가는 우리黨』題下の 8.17 字 勞動新聞 論說은 기실은 金日成이 아닌 金正日 중심의 단결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 金日成의 革命思想과 理論, 業績들이 金正日에 의해 순결하게 繼承·發展·豐富化되고 있다고 주장, 黨이 金正日에 의해 실질적으로 領導되고 있음을 示唆하면서 金正日이 있기에 오늘과 같은 金日成의 主體思想이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過去 文法」을 사용함으로써 현재 北韓內에 後繼體制에 대한 反對·挑戰勢力이나 體制不安 要因이 있는 것이 아니라 過去 後繼體制 구축과정에서 이러한 世襲體制에 도전하는 움직임이 있었음을 示唆하고 있음.

大聖銀行「재보증권」發行 關聯 分析

1. 報道內容 要約 ('89. 7. 19. 平放 및 신회사 報道)

- 北韓은 '89. 7. 19 對外決濟業務를 주로 하고있는 大聖銀行長 전명희의 기자회견을 통해 北韓 최초의 公債 발행 계획을 발표하였음.
- 北韓은 경제건설을 촉진하고 주민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년 8월 1일부터 약 8개월간에 걸쳐 大聖銀行을 통해 「재보증권」을 발행키로 하였음.
- 발행대상은 해외동포 및 북송교포로 하고 있으며, 채권소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함께 북한지역내에서 북한주민들간에 만 讓渡 및 相續이 가능한 것으로 밝히고 있음.
- 大聖銀行長 전명희는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이 증권의 액면가격, 유효기간, 투자대상, 이자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평양방송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하지 않아 발행규모 등 세부사항은 알려지지 않고 있음.
- 한편 전명희는 『해외동포들과 歸國 공민들이 '재보증권' 구입 사업을 통하여 조국의 富強을 위한 경제건설에 협력했다는 自負心과 矜持를 가지게 될 것이며, 조국에 살고 있는 가족·친척들과의 送金上의 불편을 덜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음.

2. 분 석

- 금번 北韓의 公債發行은 북한정권이후 최초의 일이며, 「평양축전」이후 財政 및 外貨不足狀態가 심각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음을 나타낸 것임.
- 北韓은 1976年 對西方債務에 대한 第1次 延滯事態가 발생한 이후 外債規模가 지속적으로 증가, 1988년 현재 總外債規模는 約 52億弗에 이르고 있으며 對西方外債의 대부분은 원리금 상황이 중단된 상태에 있음.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양축전」을 개최함으로써 각종시설 건설, 해외인사 초청 및 운영비 등 막대한 경비를 지출, 재정 상태는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임.

- 축전기간중 일부 외신기자들은 평양축전 개최비용을 무려 40億 - 87億弗로 推定 報道한 바 있음.

- 특히 자체생산능력 부족에 따른 각종 시설물의 내장설비 및 소비재 수입수요가 급증, 保有外貨가 소진됨으로써 현재 추진중인 「제3차7개년계획」의 지속적인 수행이 사실상 어렵게 된 상황으로 보여짐.
- 따라서 北韓은 國際信用의 상실로 인해 서방제국으로부터의 現金借款은 이미 단절된 상태에 있으므로 해외동포 대상의 公債를 발행하여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긴급처방을 강구하게 된 것으로 분석됨.

3. 전 망

- 北韓은 公債發行이 시작되는 금년 8月 이후부터 해외동포의 북한방문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 예상됨.
 - 이러한 사업을 통해 축전 개최를 계기로 변모된 평양시가지의 발전상을 선전함으로써 이를 정치선전에 활용하는 한편
 - 재미동포나 재일조총련의 北送家族 상봉을 미끼로 公債를 매입케 하여 재정위기를 극복함은 물론
 - 축전준비로 건설된 관광건설을 활용, 觀光外貨收入도 증대시킴으로써 경제건설 자금조달을 기도할 것임.
- 그러나 公債의 讓渡나 相續은 北韓주민들 사이에서만 가능케 함으로써 이를 매입한 해외동포들에게는 결국 北韓에 資金을 寄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 해외동포들의 반응은 냉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
- 또한 北韓의 公債發行은 北韓의 對外支拂能力의 한계를 나타낸 것으로 對西方 資本誘致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白頭山 일대에 「露天혁명박물관」 조성

北韓은 최근 白頭山 일대에 각종 金日成·金正日 부자 우상 숭배 상징물들을 축조하는 한편 주민들의 답사(참배)편의를 위한 교통·숙박등 부대시설 건설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白頭山 일대를 이른바 大露天혁명전적지 박물관으로 조성한다는 엉뚱한 발상아래 추진되고 있는 이 白頭山 자연경관 훼손책 등은 현재 마감 단계에 이른것으로 알려진 地上軌道式索道(케이블카)설치작업을 비롯해 각종 우상 숭배 상징물들의 날조 조작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金正日의 지시와 직접지휘로 추진되고 있는 소위 「白頭山 혁명전적지 건설사업」은 크게 나누어 金日成·金正日의 개인 숭배 조작을 위한 각종 흔적, 또는 유물들의 날조 및 발굴작업, 이 같은 날조된 흔적들 또는 「증거물」들의 수집 정리, 보관, 전시를 위한 각종 시설물 축조등으로 구분된다. 이와함께 이같은 우상 숭배 상징물 또는 진열관들에 대한 北韓 주민들의 참배 또는 답사 편의를 위한 교통·숙박등 부대시설 마련등이 사업의 주요부분을 차지한다.

金日成이 과거 白頭山을 근거지로하여 항일빨찌산 활동을 전개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 白頭山을 중심으로 보천보, 삼지연, 무산 등지에 이른바 「혁명전적지」를 조성해 놓고 주민

들을 대상으로 우상숭배 선전을 할 때 만해도 白頭山 일대의 자연경관 훼손은 그래도 덜한 편이었다.

그러나 80年代들어 세습후계자 金正日이 권력전면에 부상하면서 白頭山의 오염과 훼손은 하루가 다르게 심해졌다. 우선 자신의 「출생의 신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金日成이 빨찌산 활동당시 白頭山 일대의 밀영지 안의 한 「귀틀집」에서 『白頭山의 정기를 한몸에 받고 태어났다』는 이른바 白頭山精氣說을 뒷바침한다는 각종 흔적들을 조작·발굴하기 시작했다.

白頭山 밀영 혁명사적지로 불리우는 이 상징물들은 「장백산 밀영」·「사자봉 밀영」등 10여개의 밀영지와 40여개의 귀틀집을 만들어 놓고 있으며 이 일대에서 약 2백여개의 우등불(헛불)자리가 발굴됐다고 北韓 선전기관들이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金正日이 태어났다는 한 밀영지 귀틀집 근처의 한 봉우리(白頭山 최고봉인 장군봉에서 약 20여km거리)를 「正日峰」으로 命名한 후 이 봉우리의 암벽에 거대한 크기로 「正日峰」이라고 새겨놓고 성대한 제막식(88.11.16)을 열기도 했다. 北韓放送들은 이 「正日峰」제막행사를 전하면서 『…白頭山 밀영의 해돋이 바위에서 아침해를 맞아 正日峰에 비취주면 어리신 金正日동지께서 용마바위 위에 올라 장검바위를 비껴드시고 백두산으로 날아 오르셨다…』는 식의 황당무계한 선전을 늘어놓는등 金正日의 「신비성」 또는 「비범성」조작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금년들어 北韓은 金正日의 탄생을 칭송하는 내용의 이른바 口號나무들이 白頭山 일대에서 수없이 발견(발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北韓 선전기관들에 따르면 이 구호나무들은 항일빨찌산 무장투쟁시절 金日成을 추종하던 빨찌산대원들이 金日成·

金貞淑부처와 그 소생인 金正日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들을 새겨놓은 나무라는 것이다.

北韓은 이 구호나무 발굴작업에는 그들 과학원 산하 「혁명사적 보존연구소」과학자들이 대거 동원돼 50여년이상이나 비바람을 견디어 온 「껍질벗긴 나무에 새겨진 글자」를 판독할 수 있었다고 주장(88.9.20 로동신문)하고 있다.

北韓선전기관들은 밀영지가 있는 수림속에서 지난 87년 봄부터 발굴작업을 시작해 금년 2월 金正日生日 전후까지 약 3천여 그루나 찾아냈는데 나무에 새겨진 구호들은 예컨대 『白頭山에 朝鮮의 白頭星 솟았다』·『민족의 태양 金日成장군, 그 태양빛 이어갈 白頭光明星』등이라고 전하면서 『…白頭星탄생을 축복하는 구호들은 우리 인민에게 끝없는 민족적금지과 혁명적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다…』(1.11 중앙방송)는 등으로 金正日의 신비성·비범성 조작연출에 열을 올렸다.

특히 北韓은 白頭山일대에 산재해 있는 10여개의 밀영지등 각종 상징물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이 일대를 대단위 露天 박물관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白頭山일대의 자연경관 훼손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즉 「白頭山 혁명전적지 건설사업」으로 이름붙여진 이 사업의 주요골자는 白頭山일대를 金日成·金正日부자 우상숭배선전을 목적으로 한 「大露天 박물관」조성계획아래 6천평방미터 규모의 「혁명 사적관」과 「群像기념비」및 金日成의 항일빨찌산 활동에 쓰였다는 각종 시설물의 발굴 복원작업이라고 北韓放送이 전했다(88.11.19).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白頭山 혁명전적지 안에 있는 「소백수골」에 혁명사적관을 건립하고, 밀영지 白頭山입구등에 독특한 형식의 門柱를 세우는 한편 빨찌산대원들의 활동모습을 조각한 群像기념비를 밀영지 근처에 축조한다는 것이다. 또한 귀틀집을 비롯한 대·소부대 숙영지등 유격지근거지들의 각종 시설물들의 복원, 삼지연일대에 참배객들을 위한 숙박시설 건설등이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라는 것이다.

최근 완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상케도식 케이블카 설치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서, 우상승배 상징물 축조에 동원된 근로자들의 수송과 이후 참배객들의 수송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북한방송(6.10)이 밝힌 바 있다. 白頭橋를 지나 경사진곳으로부터 향도봉까지 구간을 운행하게 될 이 지상케도索道 설치공사는 6월 중순현재 노반공사와 케도조립을 끝내고 케이블카를 끌어올릴 발전기실과 구조물공사가 마감단계에 있으며, 1백명의 탑승객을 실어나를 수 있는 索道차량 2대도 최근에 만들었다고 북한방송이 전했다.

이와함께 北韓주민들이 白頭山일대의 우상승배 상징물 답사(참배)행군로의 무산-백두산 밀영지, 무산-백두산등 80km도 포장했다는 것이다.

지금 87년 2월중순 金正日生日 기념행사의 하나로 白頭山밀영 개축작업착수를 시발로하여 본격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白頭山일대의 자연경관 훼손책동은 그동안 「正日峰」제막, 구호나무 발굴조작, 혁명사적관, 群像기념비등의 건립, 각종 숙영지, 박영지, 귀틀집등의 발굴복원, 지상케도식 케이블카설치, 답사행군로개설 등으로 이어지면서 갈수로 확대되고 있다.

결국 金日成·金正日父子의 개인우상숭배선전과 이를 바탕으로 하여 부자권력 세습체제기반을 구축해보려는 치졸한 작태로 인해 민족의 얼이 서린 白頭山이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황폐되고 있는 것이다.

(내외통신 645호. '89. 6. 23)

원산-금강산간 고속도로 및 元山驛舍 완공

報 道 內 容

- 元山 - 金剛山間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완공됐음.
- 평양 - 元山間 고속도로와 연결되면서 金剛山에 이르는 이 고속도로는 인민경제의 輸送需要를 원만히 보장하고 관광봉사사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창조물임.
- 또한 새로 建設된 元山驛舍는 觀光都市의 특색을 잘살려 8각형으로 웅장화려하게 꾸며졌으며 여러개의 손님대기실, 도서열람실, 공중전화소, 식당, 청량음료점 등 편의시설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음.

(中放, '89. 6. 24)

評 價

- 北韓이 발표한 元山 - 金剛山間 고속도로는 약 114km로 기존의 도로(폭 7m)를 확장(12m), 직선화하고 콘크리트로 포장한 도로로서 平壤 - 元山間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음.
- 금번 개통된 元山 - 金剛山間 고속도로는 지금까지 金剛山을 찾는 관광객 數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투자

의 효율성을 도외시한 낭비적 공사라 할 수 있고 새로건설했다는 元山驛舍도 이용객 數에 비해 지나치게 화려한 것이 특징임.

- 北韓이 경제적 효율면에서는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 元山-金剛山 고속도로와 元山驛舍 신축공사를 서둘러 완공시킨 것은 7月 「평양집회」에 참석하는 외국인들에게 金剛山 관광을 권유, 外貨를 획득해 보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것임.

對南 動 向

- 남북대화공세 강화 배경과 속셈
- 대화전략「民間級」 대화로 선회
- 「全教組」 결성에 편승한 대남선동공세 강화
- 「범민족대회」 제의 배경과 속셈

남북대화공세 강화배경과 속셈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이 폐막된 이후 북한의 對南 평화선전공세가 한층 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당초 「평양축전」을 계기삼아 대내외적 역량면에서 對南우위를 과시하려던 북한은 그들 예상과 달리 성과면에서 실패작이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자, 이를 해소라도 하려는 듯 대화제의와 함께 한국정부를 비난하는등의 對南모략선동공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이같은 對南공세는 文益煥목사와 徐敬元의원, 그리고 林秀卿양등 최근 일련의 밀입북사건에 편승해 그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그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북한도 「평양축전」이 끝난이후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대화재개에 전례없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는가 하면 임수경양을 앞세운 「국제평화대행진」을 통해 對南통일투쟁 선동에 박차를 가하기도 했다.

특히 북한은 「平祝」 이전까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남북 대화에 대해 행사이후 본격적인 공세를 취하고 나옴과 동시에 그동안 함구로 일관해오던 徐敬元의원의 밀입북사건등을 뒤늦게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비호선전을 하고 나섰다.

우선 북한은 徐의원의 밀입북사건에 대한 수사보도가 나온지 12일 만인 7월 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성명을 발표하고, 徐의원

이 평양 방문중 金日成을 비롯해 관계부문 일꾼을 만나 『통일문제를 상론한것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徐의원이 밀입북했다는 이유를 들어 『간첩죄로 몰아 부쳐 구속하는 책동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민족 반통일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이같은 주장은 文목사때와 마찬가지로 통일문제협의를 위한 무차별 개별 접촉이라는 그들의 대화논리를 정당화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정부의 당국자간 대화입장을 퇴색시키려는 뜻을 내포한 것이었다.

그러한 속셈을 뒷바침하듯 북한은 7월 9일 「평양축전」에 참가한 해외친북동포들을 동원해 개최한 「해내의동포들의 조국통일축전대회」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許鏞의 보고를 통해 소위 범민족대회를 제의하고 나왔다. 북한은 이 제의에서 해방50주년이 되는 95년에는 반드시 역사적인 남북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90년대의 첫해이며 해방45주년이 되는 90년 8월 15일 판문점에서 南과 北, 그리고 해외동포대표들로 구성되는 조국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를 소집하자고 제의한 것이다.

범민족대회는 북한이 70년대에 들고 나왔던 대민족회의·전민족대회등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된 것으로, 그 실효성보다는 대외적 선전효과에 보다 큰 뜻을 두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북한은 그들의 통일의를 대내외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방편으로 군중집회유형의 범민족대회를 제기한 것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南北對話에 있어서도 본격적인 자세전환을 나타냈다. 즉 북한은 남북국회회담의 예비회담을 비롯 高位當局者會談, 체육회담, 그리고 남북적십자실무대표 접촉등 그동안 연기해왔던 각종 남북 대화채널들을 즉각 재개할 것을 잇달아 제의하고 나선 것이다.

우선 7월 18일 南北국회회담예비회담 북한측 대표단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측이 무기연기한 남북국회회담 제8차준비접촉을 오는 8월중순 판문점 평화의집 에서 갖자고 제의했다. 이 성명에서 북한은 제8차준비접촉이 徐敬元의원 밀입북사건의 여파로 무기연기된 것에 대해 『남북대화에 대한 불성실한 입장과 태도를 더욱 명백히 드러내 놓았다』고 비난하고 한국측에 무기연기조치를 철회할 것과 文목사·徐의원등 구속된 각계인사 및 청년학생들을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앞서 남북국회회담 예비회담은 韓國측 蔡汶植수석대표가 7월 6일 북한의 전금철단장에게 보낸 통지문을 통해 徐敬元의원의 비밀입북공작을 벌인 것을 이유를 들어 유감을 표시함과 동시에 당초 7월 11일로 예정되었던 제8차예비회담을 새로운 분위기가 성숙될때까지 무기연기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북측 대표단은 18일 성명에서 『北南국회의원들의 판문점상봉을 진행하면서도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계인사들은 그들대로 또 얼마든지 내왕하고 접촉할 수 있다』면서 徐의원의 밀입북을 비호하고 새로운 회담일시를 제시한 것이다. 북한측의 이러한 태도는 그들의 종래 다방면적인 개별접촉전략을 계속 고수하면서 대화분위기를 경색시키고 그 책임을 한국측에 떠 넘기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그러한 속셈에서 북한은 7월 20일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 북측 대표단 성명을 발표하고 7월 12일 갖기로 제의했던 3차예비회담을 한국측이 역시 북한측의 불성실한 대화자세를 들어 무기연기한데 대해 반박하고, 이 회담을 8월말 판문점 평화의집 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당초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의 3차준비접촉은 4월 12일로 예정되

어 있었으나 북한측이 文益煥목사 밀입북사건을 구실로 4월 26일, 7월 12일로 두차례나 일방 연기한바 있었다. 그러나 한국측의 무기연기조치에 대해 『나라의 통일을 위한 北과 南의 인사들 사이의 접촉과 대화는 누구누구와 하든 정정당당한 애국활동으로서, 이것을 무슨 정치공작으로 묘사하는 것은 남북대결을 고취하는 분열주의 책동』 운운으로 비난했다. 또한 북한측은 23일 한국측이 남북체육회담을 무기연기한데 대해서도 맹비난하고 3차회담을 오는 8월 10일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재삼 제의했다. 남북체육회담 북측대표단은 이날 성명에서 그 같이 제의하고 文益煥목사와 徐敬元의원, 林秀卿양등의 밀입북이 『애국적 열망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서 남북체육회담을 위해서는 좋은일』이라고 주장하고 한국측대표단에게 체육인의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하는 공세를 취했다.

이와함께 북한은 또 7월 24일에는 북한적십자회위원장 孫成弼명의로 金상협 韓赤총재에게 편지를 보내 『쌍방사이에 걸려 있는 문제들을 기탄없이 합의하기 위하여 오는 8월 2일 오전10시에 우리의 대표단을 판문점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낸다』고 통지했다. 韓赤은 지난 7월 12일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 적십자본회담 재개문제를 논의키위한 실무대표접촉을 8월 2일 개최할 것을 제의한바 있었는데 북측이 이에 수락하고 나온 것이다. 이렇듯 북한이 축전이후 그 어느때보다도 적극적인 대화제의 공세를 펼치고 나온데는 그들 나름의 시위효과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평양축전기간중 북한도 줄곧 林秀卿양을 對南선전판으로 내세워 한국정부와 미국을 반통일세력으로 비난하면서 그들의 평화이미지 부각에 열을 올린바 있었다. 특히 「평양축전」을

계기로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집중된 것을 계기로 북한통일노선의 정당성을 적극 선전하는 가운데 그들의 대외적 立地를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따라서 북한은 그같은 여세를 타고 기존의 남북대화에 대한 공세적 자세전환을 통해 대화주도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다방면적인 개별접촉을 통한 통일문제논의를 적극 부추김으로써 한국정부입장을 궁지에 몰아 넣으려는 것이다. 요컨데 한쪽으로 文목사·徐의원·林양등과 같은 재야 좌경인사들과의 불법적인 통일논의를 한껏 부각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당국간 남북대화를 진행함으로써 韓國內의 통일논의에 대한 自中之亂을 촉발시키려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내외통신 650호, '89. 7. 28)

대화전략, 「民間級」 대화로 선회

그동안 정치·군사문제가 남북한 문제의 핵심사항이며 여타분야에 우선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매달려온 북한이 최근 「民間級」 대화 및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형태의 접촉과 교류를 제의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정치협상회의 소집·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北京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출전을 위한 체육회담 등 정부주도하의 정치적 성격의 대화를 제의 혹은 추진하는 것과 병행하여 ●88년 12월 9일 對南평화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내세워 이른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汎민족대회」 소집을 위한 실무대표회담을 제의한 이래 ●平壤축전 참가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학생회담 ●한국의 「민족문학작가회의」에 의해 제의된 작가회담 ●「5·1절」에 즈음해 공동기념행사 개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 ●통일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천도교도회담 ●平壤축전참가문제를 위한 6개 단체대표회담 ●미국의 韓國史 왜곡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역사학자회담 ●해방44週에 즈음한 제2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 ●종교인간의 화해와 단결을 도모하고 통일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종교인회담 등 6개월여의 기간동안 무려 9가지의 소위 「民間級」 대화 및 교류를 제의 또는 수락해 왔다 (자료참조).

북한의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民間級」 대화제의는 한국사회에

서 민주화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각계각층으로부터 남북교류 및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분출되고 있는데 편승해 북한내의 유관 단체들을 내세워 마치 이들 단체가 독자적으로 對話를 제의한양 선전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의 통일논의를 가열시키는 한편 한국 정부의 對北 창구 一元化 정책에 타격을 가하려는 對南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5월 30일 黨기관지 노동신문이 「대화와 통일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궤변」 題下의 논설을 통해 북한측에 의해 「민간급」대화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사실을 『민족적 단합과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 데서 매우 긍정적인 사태발전』이라고 적극 찬양하면서 한국정부가 對北창구를 一元化하고 「民間級」대화의 비현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대화와 통일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反對話·反統一的 범죄행위』라고 맹렬히 비난한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논설은 북한이 이미 발기되어 있는 기존의 남북대화채널을 외면한채 「民間級」 대화만을 촉구한다는 여론의 화살을 의식해 그들이 당국간의 회담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당국간 회담과 함께 「民間級」대화를 다같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대화에 임하는 북한측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남북한문제를 정치·군사문제로 인식하며 정치적이며 정부 주도적인 정치군사회담이나 3者회담의 실현에 주력해 온 종래의 대화전략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우기 노동신문 논설에서 당국간회담과 「민간급」회담을 병행해 추진하는 것이 대화에 임하는 「원칙적 입장」이라고 강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의 태도는 「民間級」 대화에 더 많

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북한은 금년들어 金日成신년사를 통해 「남북정치협상회의」 소집과 정치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제의하면서도 국회 회담이나 남북적십자회담·경제회담과 같은 기존의 회담을 재개하는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반면 새로운 「民間級」 대화제의를 무려 7가지나 제의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최근 북한이 「民間級」 대화에 치중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對南전략적 측면에서 한국사회에서 북한의 이러한 주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데 고무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국의 민주화발전에 따라 일부 在野세력과 급진적인 학생들이 통일지상주의적 감상에서 북한의 대화제의를 속셈을 도외시한채 이를 적극 수용코자함에 따라 이들을 부추켜 한국사회의 혼란을 조성하는 한편 통일문제에 대해 주도적 입장을 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북한은 「民間級」의 대표권을 갖지 못하는 어용단체를 내세워 다방면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제의함으로써 한국사회내에 북한의 통일전략에 동조하는 세력을 扶植하고 이러한 토대위에서 이른바 통일전선을 구축하려는 저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애호적 이미지 제고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 86년 1월 팀스피리트훈련을 구실삼아 기조성된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이후 정치군사회담·정치협상회의 소집등 새로운 對南제의를 획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對話재개의 노력을 보이지 않은채 그동안 전

략적 伏線에 따라 北京 아시아경기대회 남북단일팀 출전을 위한 체육회담과 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등 극히 제한적인 분야서만 대화에 임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의 민주화 발전과 더불어 美·蘇간의 데탕트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북한은 이러한 변화에 동승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의 필요를 느껴왔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反帝연대성 투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열리는「평양축전」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이목이 북한으로 쏠리고 있는 시점에서 평화애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새로운 대화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는 거론하지 않은 채「제2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의 교환을제의하고 나온데서도 엿볼 수 있다. 즉, 북한은 1천만 이산가족의 염원을 담은 인도주의적 구상을 통해 한국사회는 물론 국제사회로까지 북한의 대화노력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 제의는 여타「民間級」대화제의가 실현가능성을 배제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제의된데 비해 비교적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제의라는 점에서 선전적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향후 더욱 다양한 형태의「民間級」대화를 지속적으로 제의함으로써 對南전략적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혼란조성과 통일전선 구축을 위한 동조세력 규합에 주력하는 동시에 이들「民間級」대화제의를 국제사회에서의 평화애호적 이미지 제고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책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내외통신 643호. '89. 6. 9)

◀ 참고 ▶

최근 「민간급」 대화 및 교류제의현황

구 분	날 짜	내 용
「범민족대회」 소 집을 위한 실무대 표 회담	1988.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한국의 在野 단체인 「범민 족대회추진본부」앞으로 보 낸 「공개서한」에서 同계획 추진에 지지를 표명하며 ○ 1989년 1월중 同대회를 개 최하기 위한 실무대표회담 을 빠른 시일내에 갖자고 제의
학생회담	1988.1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학생위원회」 명의로 한국의 전국대학생 대표협 의회 (全大協)에 보낸 「편 지」를 통해 -1989년 7월1~8일간 平壤 에서 열리는 제13차 세계 청년학생축전에 한국학생 들을 초청하며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 를 협의하기 위해 1989년 3월 판문점에서 南北이

		<p>각각 9~11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同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p>
작가회담	1989. 2.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민족문학작가회의」가 1988.7.2 이 회담을 제의한데 이어 同年 11. 28 이 회의부의장 고은 이 訪日중 기자 회견에서 이를 재차 제의한바 있는데 ○ 이를 「조선작가동맹중앙위」공개서한을 통해 수락
「5·1절」 공동 기념행사제의	1989. 3.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職總이 한국의 「전국노동단체협의회」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절」 행사를 서울과 平壤에서 쌍방의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 하고 - 서울과 평양에서 쌍방 대표가 참석하는 연환 모임을 가질 것을 제의하면서 ○ 이를위해 4.10 판문점에서 각각 5명의 대표가 참가하는 실무접촉을갖자고 제의

천도교인회담	1989. 4.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도교創道 129주년기념식에서 崔德新이 행한 「보고」를 통해 - 통일문제를 협의 하기 위해 同회담의 개최를 제의
「평양축전」참가문제를 위한 6개 단체 대표회담	1989. 5.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축전조선준비위」·사로청·「조선학생위」공동기자 회견을 통해 한국의 全大協·「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남북대학생교류추진위」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하는 형식으로 위의 6개 단체가 참가하는 同회담을 제의 - 각 단체에서 3~5명의 대표를 구성해 - 5.20판문점에서 한국학생들의 「평양축전」참가문제를 의제로 협의할 것을 주장
南北역사학자회담	1989. 5.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조선역사학회」 회장등이 「공개서한」을 통해 최근 미국에서의 한국역사 왜곡사례를 제시하며 - 각각 3~5명의 역사 학자

		<p>들을 대표하여</p> <p>-6.15 판문점에서 회담을 열어 이에대한 구체적 대책을 논의할 것을 제의</p>
제2차 예술단·고향방문단교환	1989. 5.31	<p>○북한적십자사회위원장 손성필, 韓赤총재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제2차 예술단및 고향방문단교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p> <p>-이를위해 6.16 10시 판문점에서</p> <p>-각각 2~3명의 대표가 참가 하는 실무대표 접촉을 갖자고 제의</p>
南北종교인회담	1989. 6. 2	<p>○「조선종교인협의회」명의로 한국종교인협의회 앞으로 보내는 「편지」를 통해</p> <p>-6월 하순경 판문점 혹은 서울이나 평양에서 각각 7명정도의 대표를 구성하여 개최할 것을 제의</p> <p>-종교인간의 화해와 통일문제등을 의제로 하는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p>

「全教組」결성에 편승한 대남선동공세 강화

최근 北韓의 對南선동공세는 교원노조결성과 관련한 한국정부와 노조측간의 離間과 투쟁확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北韓은 5월들어서만도 文益煥목사 수사결과를 비롯해 東義大사건, 이철규변사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9周 등과 관련한 對南모략선전을 집요하게 전개해오던 터에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全教組) 결성에 따른 파문이 고조되는데 이르자 이에 편승한 對南공세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나온 것이다.

북한은 지난 5월중순경 한국정부가 全教組결성의 不許방침을 분명히 하게 되자 그들의 선전기관을 동원, 기다렸다는듯 교원노조결성을 적극 비호하고 한국정부에 대한 맹비난을 퍼부었다.

지난 5월 23일 黨기관지 노동신문은 論評에서 교사들의 勞組결성 움직임을 『지극히 정당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교사라고 해서 노조를 결성치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는 한편으로 정부당국의 불허방침은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이어 『파쇼악법과 총칼폭력으로 교직원들의 노조결성을 가로막음으로써 그들의 조직적 단결과 학생운동과의 적극적인 연대가 이루어질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조선교직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총칼로 짓밟게려는 범죄적인 탄압책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같은 論旨는 한마디로 일방적인 흑백논리에 입각, 한국정부

당국의 방침은 이른바 폭압적·반민족적 범죄행위라는 등의 모략 선전을 퍼붓는 한편으로 교원노조결성은 「지극히 정당한 행동」으로 비호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韓國內에서 교원노조결성에 대한 국민적 贊反여론은 물론 교사들간의 의견차이 등이 상존하고 있고 이를 합리적으로 대처하려는 정부·국민간의 노력등 근본적인 문제제기 등은 일체 묵살한채 오로지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對南선동을 가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對南선동양상은 지금까지 전개돼왔던 文목사사건, 東義大 사건, 이철규변사사건 등에서 여실히 드러냈듯 韓國內의 견잡을 수 없는 정치·사회적 혼란을 유발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그같은 의도는 韓國內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시국사건에 대한 이미 편협화되고 적대적인 기본태도를 재확인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컨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진상왜곡과 과장 선전, 악의적인 호칭과 용어구사 등은 그들의 對南赤化의도가 날로 가열되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그 예로 지난 5월 28일 全教組가 延世大에서 전격적으로 결성된 것과 관련해 정부당국에서 일단 불법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일선교사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법 개정, 교원지위법 제정, 노조이외의 교육단체허용등 전교조설립불허에 따른 수습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왜곡선동공세를 펼치고 나오는 작태를 재현했다.

즉 북한은 그들의 신문·방송등 선전매체를 통해 敎員勞組결성 문제를 주요 對南이슈로 부각시켜놓고 한국정부당국의 불허방침을 격렬히 비난하면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교사들의 反정부투쟁

을 적극 선동했다.

북한의 중앙방송은 5월 29일 全敎組결성과 관련한 서울의 방송 보도를 인용해 한국정부당국이 교원노조결성대회에 참가하는 교사들을 전원 연행할 것이라고 공표했다면서 『이것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마저 짓누르고 교원들이 조직화된 역량으로 뭉치지 못하게 하려는 악랄한 책동이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 방송은 이어 敎員勞組가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난 것』이라고 강변하고 『이제 교원들의 투쟁을 결코 억누를수 없으며 탄압을 강화하면 할수록 교원들이 보다 큰 항거를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는 등으로 교사들의 反정부투쟁을 선동했다. 이와같은 방송論調에서도 역시 앞서 5월 23일자 노동신문에서 韓國내의 갈등과 대립요인을 증폭시켜, 확산시키려는데 초점을 맞춘 것과 똑같은 맥락의 선동형태를 보여주었다.

요컨대 북한의 對南선동 배경에는 全敎組결성에 따른 교원들의 「민주적 권리」 「참된 교육」 목적달성 등을 옹호하기 보다는 조직적인 反정부투쟁을 전개하는 것에 비호와 선동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선전기관들의 全敎組결성과 관련한 對南선동을 벌이면서도 全敎組가 내세우고 있는 교사의 권익향상과 교육제도, 근로조건, 후생복지, 임금문제등 북한교육계에도 자극제가 될수 있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일체 외면하고 있는 궁색한 입장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선동태도는 韓國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全敎組결성의 不許방침이 일시적으로 사회적 대립과 파란을 몰고온다 해도 여타의 시국사건들처럼 조만간 타결, 진정국면을 맞이하게 될 때에 부딪칠 불리한 입장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상 북한으로서도 한국내의 정치·사회적 사건에 대한 일방적 비난공세를 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한 對南선동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적지않은苦心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비록 對南선동을 끊임없이 전개함으로써 북한주민과 근로자들의 「긴장된 동원태세」와 「혁명적 투쟁정신」 「영웅적 노력배가와 충성심」등을 고취하는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그같은 북한의 對南선동에 의한 대내적인 반대급부를 노리는 식의 수법은 이제 북한주민들조차도 食傷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實效性여부가 의문시될 정도이다. 오히려 해외를 통해 망명·귀순해온 북한주민들의 말을 빌리면 폐쇄적인 사회분위기에 갇혀있는 북한주민들은 북한선전기관들이 펼치고 있는 對南선동메시지 속에서 남한소식과 동향을 얻게 되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말한다.

북한선전기관들이 아무리 남한소식을 왜곡선전한다해도 기본적인 사실조차 날조하기에는 어려운 것이므로 북한주민들이 韓國사회에서 시시각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갖가지 역동적 동향을 파악하는 중에는 북한체제에 비해 월등히 앞선 사회적 변화와 움직임을 엿볼수 있는 好期가 되는 것이다.

어쨌든 북한은 지난 40여년동안 변함없이 집요하게 전개하고 있는 韓國의 공산화라는 궁극적 목표달성을 위해 對南전략에 입각한 사회혼란조성책동을 구사하고 있다. 최근 한국내의 시국사건들을 겨냥해 펼치고 있는 그들의 對南선동양상을 보면 마치 폭력투쟁전술을 구사하기 위한 最適期를 맞이한듯 전례없이 그 熱氣를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일부 대학가에서 오는 7월 평양에서 열리게될 平壤反帝연대성행사의 포스터를 전시하는가 하면 「꽃파는 처녀」와 같은 혁명가극을 공연하게 되자 더욱 붉게

충혈된 시각으로 혁명분위기의 성숙을 바라보고 있는듯 하다. 이러한 일부 대학가의 북한편향추세에 편승, 북한은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선동자료와 선전물들을 대량유입시키는 한편으로 한국정부와 국민간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기 위해 일련의 시국사건들에 편승, 반정부폭력투쟁을 확산시키는데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진다.

(내외통신 642호, '89. 6. 2)

「범민족대회」제의배경과 속셈

徐敬元의원 등의 밀입북사건으로 인해 최근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통일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범민족대회」 소집을 제의하고 나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제의는 북한이 지난 7월 9일 「평양축전」에 참가한 해외친북 동포들을 동원해 개최한 「해내외동포들의 조국통일촉진대회」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許鎡의 「보고」를 통해 제기되었다. 許鎡은 이 보고서에서 해방50주년이 되는 95년에는 반드시 역사적인 남북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90년대의 첫해이며 해방45주년이 되는 90년 8월 15일 판문점에서 남과 북, 그리고 해외동포대표들로 구성되는 조국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를 소집하자고 제의했다.

북한의 이같은 대화제의를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첫째는 대회소집제의를 북한의 통일정책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許鎡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비록 許鎡이 對南위원장평화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자격으로 범민족대회의 소집을 제의했다고 할지라도 對南정책수행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때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북한이 최근 한국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편승해 이른바 「民間級」으로 부르는 개별조직들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제의하는 새로운 대화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시점에서 許鎔에 의한 대화제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대화방식면에서 종래의 군중집회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점이다. 북한은 금년도 金日成신년사에서 군중집회방식의 남북정치협상회의 소집을 제의한바 있지만 이에 앞서 70년대에 이미 「대민족회의」·「전민족대회」라는 명칭으로 이번의 「범민족대회」와 유사한 형태의 군중집회적 대화제의를 한바 있다.

「대민족회의」는 73년 6월 23일 체코공산당총비서 후사크의 訪北時 金日成이 환영연설을 통해 이른바 「조국통일5대방침」을 제시하는 가운데 제안한 것이다. 金日成은 이 연설에서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과 북의 각계각층 인사들과 정당·사회단체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의하면서 이 회의에서 남과 북에 현존하는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남북연방제를 실시하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했었다. 특히 金日成은 「대민족회의」를 소집하는 이유에 대해 『조국통일을 위해 북과 남 사이의 대화가 다만 북과 남의 당국자들 사이의 범위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전 민족적인 범위에서 벌어져야 한다』고 주장, 군중집회적 대화방식의 정당성을 강변했었다.

그리고 「전민족대회」는 79년 1월 19일 한국의 朴正熙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해 시간과 장소·수준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를 시작하자는 「1·19제의」를 한데 대해 북한이 이틀 후인 1월 23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성명을 통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역공의 형태로 제의한 것이다. 즉 이 성명에서 북한은 한국측의 대화재개 요구에 대해 반대하면서 남과 북의 정당·사회단체대표 및 각계각층의 「애국적 인사」

들, 그리고 해외의 동포조직들과 개별적 인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대회」를 같은해 9월初 서울이나 平壤에서 개최할 것과 이를 위해 6월初 平壤에서 남북한 및 해외에 있는 정당·사회단체들의 실무급 대표들이 쌍무적 또는 다무적인 예비회담을 갖자고 제의했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북한이 이번에 제의한 「범민족대회」는 앞서 제의한 「전민족대회」와 대화방식이나 대표구성, 그리고 대화제의의 저변에 깔려있는 의도등에서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대민족회의」는 해외동포대표의 참가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남북연방제案을 뒷받침하려는 의도하에서 제의되었다는 차이가 있지만 「전민족대회」와 「범민족대회」는 용어상에 있어서 「全」과 「汎」이라는 접두어와 대회제의시기등 지역적인 부문에서의 차이 이외에 별다른 상이점이 없다.

북한이 10여년전에 제의하여 비효율성과 부적절성 등으로 인해 한국측으로부터 전혀 호응을 얻지 못했던 군중집회방식의 대화제의를 다시금 반복해서 제의하고 나선 것은 이 제의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는 용어 및 내용상에 있어서의 非독창성을 지적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민족대회」는 북한에 의해 10여년 전에 제의되었던 「전민족대회」와 용어 및 내용면에서 유사한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한국의 在野단체에서도 이와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비슷한 내용의 제의를 한바 있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즉, 「범민족대회」라는 명칭은 한국의 在野인사들에 의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라는 이름으로 먼저 사용되었고

북한도 '88년 12월 9일 이 대회 추진본부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이 단체가 추진하는 범민족대회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며 실무적인 문제들을 사전에 협의하기 위한 실무대표자들 간의 예비접촉을 갖자고 제의한바 있다.

그러나 許鎔은 이번에 「범민족대회」의 소집을 제의하면서 한국의 在野단체에 의해 이 대회가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나 북한측에 의해서 이 대회의 추진을 위한 실무접촉이 제의된 것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이번에 제의한 「범민족대회」가 한국의 在野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범민족대회와는 무관한 것인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북한의 이같은 태도는 이 대회의 소집을 제의한 속셈이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과업을 수행하려는 것보다는 한국내의 급진세력과 해외의 親北인사들을 고무충동하여 이른바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데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네번째는 「범민족대회」 소집제의를 담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다. 許鎔은 연설에서 『이제 우리 민족은 머지않아 통일의 年代로 장식될 희망찬 1990년대 문호위에 들어서게 됩니다. 1995년은 조국해방 50돌이 되는 역사적인 해인 동시에 민족분열의 50년을 헤아리게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절대로 반세기 이상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고 언급, 1995년을 「조국통일의 역사적해」로 설정해 놓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범민족대회」의 소집을 제의했다.

許鎔의 이같은 주장은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통일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통일을 위한 제반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더욱이 북한 스스로가 통일기반의 조성을 위한 남북대화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6년후에 통일을 이룬다는 발상은 상식을 초월한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이 이번에 「범민족대회」의 소집을 제의하고 나온 것은 대회의 성사여부와는 관계없이 이같은 제의를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주도적 입장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범민족대회의 소집을 추진하려는 한국사회의 일부 급진세력들과 연대할 경우 최소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許鎡이 연설에서 『조국의 현실은 통일을 위해 헌신하는 애국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통일을 지지하는 모든 「애국역량」의 결집을 촉구한 데서도 엿볼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구도하에서 앞으로 한국내의 급진세력과 해외의 親北인사들을 상대로 공산화통일을 위한 통일전선 구축에 주력하는 동시에 한국사회의 혼란을 조성시키기 위한 대남선전을 더욱 강화하려는 속셈을 「범민족대회」 소집제의를 저변에 숨기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9일 平壤체육관에서 개최된 「해내외동포들의 조국통일촉진대회」는 「평양축전」에 참가한 해외동포 수천명 (재일조총련계 열동포 3천명 포함)과 북한주민 6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許鎡의 보고, 참가대표들의 「연설」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대회에서는 許鎡의 「범민족대회」 소집제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 대회의 名義로 「조국통일에 관한 선언」과 「해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 자 료 ▶

許鎔 「보고」 要旨

우리나라에서 통일은 곧 애국이며 통일운동에 몸바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오늘 조국통일을 당면 최대의 임무로 제기하고 있는 조국의 현실은 통일을 위해 헌신하는 애국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투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족분열을 반대하고 나라의 통일을 지지하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애국역량은 사상과 이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하나와 같이 굳게 뭉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민족은 머지않아 통일의 연대로 장식될 희망찬 1990년대 문호위에 들어서게 됩니다. 1995년은 조국해방50돌되는 역사적인 해인 동시에 민족분열의 50년을 헤아리게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절대로 반세기 이상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세대가 민족 앞에 지닌 중대한 책임이며 통일을 一日千秋로 갈망하고 있는 우리겨레의 염원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은 統一枚國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민족통일 대행진을 더욱 힘차게 다그침으로써 조국해방50돌이 되는 1995년은 반드시 조국통일의 역사적인 해로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통일 大望이 하루 빨리 현실로 되게 하려는 일념으로부터 1990년대에 들어서시는 첫해이며 조국해방45돌이 되는 해인 1990년 8월 15일에 판문점에서 북과 남, 해외동포 대표들로 조국통일을 위한 뜻깊은 전민족대회를 소집할 것을 정중

히 제기하는 바입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민족의 정당한 애국위업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우리 겨레는 기어히 통일된 조국에서 다같이 화목하게 살게 될것입니다. 모두 다 역사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손에 손을 잡고 北에서, 南에서, 海外에서 다같이 힘차게 싸우고 싸워나갑시다.

(내외통신 649호, '89. 7. 21)

對 外 動 向

- 北韓 · 헝가리 관계 惡化
- 岐路에 선 北韓의 對東歐 외교
 - 최근의 對非同盟 외교활동
 - 北韓 - 이란間 경제협력 강화

對外動向

北韓·헝가리관계 變化

韓國과 헝가리간의 관계개선과 함께 급속도로 멀어지기 시작한 北·헝가리간의 냉각관계는 마침내 상호간에 30여년동안 유지해 오던 비자(入國査証) 면제협정마저 폐기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7월24일 외교부 실무관계자 이름으로 발표한 담화를 통해 헝가리가 지난 18일 北韓에 대한 비자발급 면제협정을 폐기(8. 10부터)한다고 통보해 음에 따라 北韓도 對헝가리 비자발급 면제협정을 오는 8월1일부터 폐기한다고 밝혔다.

이 담화에서 北韓은 헝가리의 對北협정폐기 통보는 한국과 미국의 압력 및 使嗾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헝가리가 『사회주의를 배반하고 사회주의국가들을 배척』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北韓은 이에 앞서 헝가리가 對北협정폐기 통보를 해오던 7월18일에도 역시 외교부 실무관계자 名義로된 담화를 발표, 헝가리의 이같은 조치를 맹렬히 비난한 바 있다. 이 담화에서 북한은 헝가리가 지난 2월 한국과 비자발급 면제협정을 체결하면서 이미 56년에 체결한 북한과 협정을 폐기한 사실에 큰 불만을 나타내면서 이같은 헝가리의 처사는 『제국주의자들과 손잡기위해 사회주의나라들을 배척하는 것이며 북한과의 왕래를 제한하는 대가로 韓·

美측으로부터 『몇푼의 달러를 받아먹기 위한것』이라고 매도했다.

특히 北韓은 이 담화에서 7월초순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헝가리대표단원들이 『나쁜 선전물을 돌린바있다』고 주장, 이번 행사에 참가한 헝가리등 일부 공산권국가 대표단원들이 북한 의 폐쇄·탄압체제와 지나친 우상숭배 및 父子권력 세습체제, 그리고 지나치게 호화로운 행사규모등에 대해 노골적인 비판과 비난태도를 보였다는 외신보도내용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앞서거니 뒷서거니하며 비자면제 폐지공방전을 벌인 北韓과 헝가리간의 이같은 신경전은 이미 예정돼 있다시피한 手順에 따라 취해지고 있는 필연적인 조치들이란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즉 지난 2월 헝가리와 한국간에 비자발급 면제협정이 체결되면서부터 헝가리의 對北협정폐기, 그리고 이에 맞선 北韓의 對헝가리협정폐기통고는 이미 예정된 코스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盧泰愚대통령의 7.7선언이후 급속도로 추진된 한국과 헝가리간의 관계개선작업은 상대적으로 北韓과 헝가리간의 관계를 생각시킬수 밖에 없었고, 그동안 주고받는 공방전이나 신경전의 양상에서도 쌍방간에 피차 거북스럽고 불편한 입장을 그대로 表出됐었다.

7.7선언이후 한국과 헝가리간 통상대표부개설이 합의(88. 9. 13)되자 北韓은 즉각 로동신문논평(9. 17)을 통해 헝가리의 그같은 태도를 「사회주의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사회주의대열에 대한 분과행위」(10. 26 외교부대변인 담화)라고 비난하는등 날카롭게 대립하기 시작했다. 특히 北韓은 그당시 헝가리주재대사로 내보낸지 얼마 안되는 김평일(金正日의 이복동생)을 즉각 평양으로

소환(11.8)함으로써 韓·헝가리 정식외교수립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데 대한 불편한 심사를 그대로 드러냈다.

금년초 한국과 헝가리간에 마침내 대사급 정식외교관계수립이 발표(2.1)되자 北韓은 대응조치로 그 다음날인 2일자로 헝가리와 의 외교관계를 대사급에서 代理대사급으로 格下한다고 발표했다.

그 무렵인 2월4일 北韓은 대남 흑색선전매체인 소위 民戰방송(통혁당방송을 개칭)을 통해 헝가리가 한국과 대사급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은 「사회주의 배신행위」라고 규정한 가운데 『우리(북한)는 동지를 배반하고 적의 편에 선자들이 어느때든 스스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을 경고한다』운운으로 거의 「협박」에 가까운 비난을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北韓의 심기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짐작되기도 했다.

한국과 헝가리간에 비자발급 면제협정이 체결(2월)되고 나서 헝가리가 7월 18일 부다페스트주재 北韓대리대사를 불러 對北비자면제협정을 폐기(8.10부터)한다고 통고하자 北韓도 뒤따라 對헝가리 비자면제협정을 오는 8월 1일부터 폐기한다고 맞서고 나선 것이다.

헝가리가 이처럼 北韓과의 비자발급면제협정을 먼저 폐기하고 나온 것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따른 北韓측의 불만등에서 증폭되고 있는 쌍방간의 관계냉각과정의 하나로 풀이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와함께 오는 11월중순 盧대통령의 헝가리방문을 앞두고 있는 헝가리로서는, 北韓인들의 헝가리 출입 및 활동을 예전처럼 그대로 자유롭게 내버려둘수가 도저히 없다고 판단하고 그 같은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아웅산폭탄테러사건, KAL여객기공중폭파사건등 수없이 恣行된 殘忍 無道한 테러행위들에서 이미 입증된 바있는 북한의 잔학성과 호전적성향을 잘 알고 있는 헝가리로서는 특히 盧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있는 마당에 北韓인들의 헝가리출입및 활동이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北韓인들의 자유로운 출입 및 활동을 보장하는 비자면제협정을 폐기함으로써 예상되는 北韓테러분자들의 잠입 및 암약을 미리 견제 내지 방지하겠다는 것이 헝가리의 확고한 입장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미 北韓이 헝가리에 대해 『스스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들것』이라고 노골적으로 경고한 바 있어 헝가리의 이번조치는 어쩔수없는 예방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北韓이 비록 비자면제협정폐기 공방전을 벌이고는 있으나 헝가리와의 관계가 더이상 악화되는 것은 결코 원치 않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우선 헝가리에 대해 강도높은 비난공세를 퍼면서도 이번 협정폐기 발표나 비난담화 모두가 「외교부 실무관계자」명의로 나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수준이나 범위를 격하시키려 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말 헝가리에 대한 비난선전을 계속 하면서도 헝가리와의 89년도 상품교역협정도 예정대로 조인(12월)했고 금년 2월초 代理대사급으로 관계격하조치를 취하면서도 쌍방간의 친선관계 노력은 계속할 것임을 다짐(외교부대변인 기자회견)한 사실에서도 헝가리와의 기본관계만은 유지해야겠다는 北韓의 입장을 읽을 수 있었다.

北韓의 이같은 소극적 태도는 비단 헝가리뿐 아니라 유고·폴란드등 많은 동구공산권국가들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강력히 희

망하고 또한 실제로 현실화하고 있는 昨今の 추세와 특히 소련·중공등의 이에 대한 「방관적 태도」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北韓으로서는 더 이상의 강경책은 바로 蠻勇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내외통신 650호, '89. 7. 28)

岐路에 선 北韓의 對東歐외교

세계 공산주의는 퇴색 또는 沒落하고 있는가? 라는 진단이 나올 정도로 극심한 변화의 물결속에 휩싸여 있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공산국가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소련의 고르바초프정권이 국내적으로 페레스뜨로이카(개편), 글라스노스찌(공개), 데몬스트라찌라찌아(민주화), 대외관계에서 상호의존을 바탕으로 한 노보예 므이슬레니예(새로운 사고)를(標榜)하고 대내외정책을 과감히 변화시킴에 따라 동구공산권도 대부분 독자성을 강조하며 과감한 개방·개혁정책을 추진하거나 그러한 방향으로의 전환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추세속에서 일부 동구국가들이 한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형제국가적 연대성을 기반으로 유지되어 온 北韓과 동구공산권간의 전통적 우호관계가 중대한 岐路에 逢着하게 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北韓의 對東歐외교정책 전환을 강요할 것이 분명하다.

최근까지 北韓과 동구공산권과의 관계는 소련이라는 要因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소련과 北韓관계, 소련과 동구개별국가들의 관계여하에 따라 北韓의 對東歐관계가 접근과 소원을 반복해 왔던 것이다. 이들의 관계를 時代的으로, 혹은 주요영향변수에 의해 고찰해 보면 소련을

중주국으로한 소비에트권의 형성과정에서 北韓·동구권은 他律에 의해 상호관계가 확정되었는바 대체로 1950年代까지 北韓·동구권을 主軸으로 상호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유지하였다(유고와는 스탈린·티토크간의 불화로 관계소원). 이 기간중 동구국가들은 北韓을 외교적으로 승인하였으며 특히 6·25전쟁후 전후복구기간중 北韓의 경제회생에 많은 물질적도움을 주었고 이러한 정치·경제적 지원으로 北韓의 對東歐관계는 밀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소련공산당 제20차대회에서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에 대한 비난과 西方과의 평화공존을 표방한 것을 계기로 동구권의 脫蘇化움직임이 나타나고 이데올로기문제로 中·蘇의 대립이 태동하게 되자 北韓도 對蘇관계의 설정에 고심하게 되고 국내적으로 이른바 「8月 宗派사건」이 발생하자 「主體」를 표방하고 나섰으며 그 결과 蘇聯과의 관계악화에 따른 東歐국가들과의 사이에 龜裂로 이어졌다. 즉 50년 말에 胎動한 中·蘇불화가 60년대에 들어와 본격화되고 더욱이 '62년 쿠바사태時 소련이 美國에 대해 屈從的인 양보태도를 보이게 되자 北韓은 자신들의 반미노선에 대한 소련의 지원여부에 큰 회의를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데올로기적 동질성을 갖고 있던 中國을 지지하고 나섬으로써 反蘇노선을 분명히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소련과의 관계악화는 소련의 통제권에 있었던 東歐圈국가들과의 관계악화로 이어졌는데 이는 蘇·東歐圈의 對北경제군사지원의 전면중단을 가져와 北韓의 경제개발에 甚大한 타격을 야기하였다.

60년대 초반의 對蘇·東歐圈관계악화는 65년 코시킨 소련수상의 北韓방문을 계기로 다시 화해의 국면으로 전환되었는데 여기에는 당시 中國의 文化大革命추진과정에서 金日成에 대한 비판대

두가 영향을 미친 것도看過될 수 없다. 이후 유럽과 동북아에서 데탕트 분위기가 형성되자 北韓의 외교적 운신폭도 넓어져 北韓과 동구권 전체와의 관계는 비교적 화해국면속에 지속적인 협조 상태를 지속해 올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北韓·동구권간의 관계변화추이에서 우리는 관계 결정요인이 「소련」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소련과 동구권 국가와의 결속정도, 중·소관계, 그리고 北韓이 가장 중요시하는 국가이익, 예컨대 金日成정권의 유지 및 지속과 對南 및 對美적대노선에 대한 소·동구권태도의 의미 등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北韓의 국가이익고수와 소련의 정책내지 태도와의 相關性속에서, 그리고 소련의 동구권에 대한 영향력정도와 그들 관계의 遠近여하에 따라 북한·동구관계가 결정적으로 좌우되어왔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앞으로의 北韓·동구관계를 단순히 예측하면 그것이 비교적 순조로울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나 현재의 상황전개가 과거의 것과는 매우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유동적일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北韓으로서는 對東歐관계의 설정에 크게 고심하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美·蘇간의 새로운 데탕트 기류속에 고르바초프의 대외정책전환에 따라 동구권의 對蘇 자율적 폭이 크게 확대되고 이미 84년5월의 金日成의 蘇·東歐순방을 계기로 소련과의 관계가 결정적 전환국면을 맞이하면서 당시까지의 협조적 對東歐관계도 더욱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과거의 추세에서 보면 전반적인 상황발전이 北韓의 對東歐외교에 유리하게 조성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특히 北韓·東歐관계向背의 결정적 요인들인 對蘇관계

의 긴밀화에도 불구하고 北韓·동구관계를 낙관할 수 없는 것은 동구권의 多元化·開放化추세가 과거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에 따라 소련과의 관계요인이 갖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더욱이 여기에 한국과 북방권간의 관계개설이라는 전혀 새로운 요인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고르바초프정권 등장후 소련이 「상호의존」적 국제관계를 표방하면서 사회주의권 특히 東歐와의 관계에서도 사회주의 공통의 이익이 개별국가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이른바 브레즈네프독트린(제한주권론)의 궤도를 수정함으로써 동구 각국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신장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동구제국으로 하여금 각자의 이익과 상황에 따라 독자적인 정책수행을 그만큼 더욱더 가능하게 만들게 하였다.

물론 동구권의 독자성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본적인 틀내에서의 「상대적」인 것은 분명하다. 이는 소련이 지난 2년 동안 헝가리·폴란드·체코등 동구국가들과 각국이 독자적인 개혁을 추구하되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의 밀접한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규제하기 위한 「이데올로기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데서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성」에도 불구하고 동구권의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에 기초한 연대성은 그만큼 약화되고 각자의 개별이익과 현실적여건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 될 수 밖에 없으며 그 결과 北韓이 동구권과의 관계에서 과거와 같이 소련을 頂點으로한 국제적 연대성에 기대를 건다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되고 있다. 또한 동구권의 개혁방향이 北韓의 기본정책노선과는 더욱 거리를 멀리하고 있다는 점도 北韓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일부 사회주의국가를 제외하고는 전통적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대한 활발한 재평가와 더불어 과감한 정치·사회·경제적 개혁의 추구가 오늘날 사회주의권의 일반적인 추세가 되어왔는데 특히 동구권의 움직임은 괄목할만 하다. 물론 동구의 모든 나라에서 多黨制의 도입과 같은 정치적 민주화의 열풍에 휩싸여 있지는 않으나 민주화의 열풍이 더욱 확산되는 추세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동구국가 가운데 스탈린주의식 체제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알바니아와 루마니아뿐인 반면 헝가리·폴란드·유고가 민주화 또는 정치·경제계획을 선도하는 가운데 최근까지만 해도 소련의 빼레스뜨로이카를 거부해 왔던 동독·체코·불가리아 등에서 공산당지도자들에 의해 또는 국민들에 의해 서서히 정치개혁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러한 동구권의 이데올로기적 硬直性 탈피 및 정치적 민주화 개혁추세로 北韓의 기존정책노선에 역행함으로써 北韓의 對東歐 관계유지 및 확대에 적지않은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나아가 헝가리의 對韓의교관계설정, 유고·폴란드·불가리아의 무역사무소 상호설치 등 동구권의 현저한 對韓관계개선추세는 北韓의 대 동구관계설정패턴에서 근본적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즉 北韓은 지금까지 소련과의 관계연장선상에서 동구와는 대체로 陣營의존적 외교패턴을 보여왔으나 앞으로는 개별국가들과의 雙務관계설정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北韓의 가장 큰 딜레마는 동구권국가들의 對韓관계확대에 제동을 걸 유효한 외교적 지렛대를 갖지 못함으로써 그러한 동향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반면 자신들의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적 동반자로서 나아가 비동맹, 제3세계 및 서구에의 진출창구로서의 동구의 가치 때문에 동구를 외면할수도 없는 처지에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北韓은 동구에 대해 2원적 외교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하나는 아직도 이념적·세계전략적 차원에서 공통의 인식을 가질수 있는 분야나 이슈를 중심으로 共同戰線的 유대를 유지 또는 확대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반핵·반전·군축등 세계적 긴장완화문제를 자신들의 대남정책과 연결시켜 집단적유대를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국가들과의 기존의 쌍무적·정치적·비정치적 협력관계를 가급적 유지·확대하는 것으로서 동구권의 추가적인 對韓외교관계설정을 적극 沮止하려 하면서도 이것의 현실적 제약성(헝가리에 대한 보복이 대리대사관계로만의 격하에 그친 것은 示唆하는 바가 크다)을 고려, 동구권의 對韓관계와 北韓·동구관계를 연계시켜 기존의 제반협조관계에서 동구권의 추가적 양보를 얻어내는 실리적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체적으로 판단할 때 비록 北韓이 2원적 외교전략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南·北韓의 힘의 비중이나 동구권의 일반적인 개혁·개방화 정책성향을 고려하면 北韓의 對東歐외교가 더욱 수세적 상황으로 몰릴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北韓으로서는 東歐의 새로운 외교적 태도를 묵인하거나 西方과의 관계에서 그 돌파구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선택의 기로에 처할 것이 분명하다.

최근의 對非同盟외교활동

오는 9월 유고의 베오그라드에서 개최예정인 제9차 非同盟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회의준비 상황을 사전점검, 조정키위한 調整委의상회의가 지난 5월중순 짐바브웨 首都 하라데에서 열렸다.

北韓등을 포함 70여개 국가·지역·기구별 대표단이 참가해 3일동안 진행(5.17~19)된 이 회의에서는 지난 86년9월 짐바브웨에서 열렸던 제8차 정상회의때 결의 또는 채택된 내용에 대한 그동안의 이행실태를 종합평가하는 한편 유고 정상회의준비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의상회의에서도 특히 최근의 비동맹운동이념 퇴색과 내부갈등을 극복하기위한 새로운 개념정립문제, 그리고 이와관련된 비동맹운동의 운영 및 기능 개선방향등에 관해 중점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회의에 北韓대표로 참석한 외교부부부장 崔수헌은 회의첫날 기조연설을 통해 비동맹운동의 그같은 궤도수정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北韓의 입장들에 대한 중요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北韓대표 崔수헌의 연설내용 가운데 한반도정세와 관련한 대목은 최근 한국사회의 왜곡된 통일논의를 대외선전에 巧妙히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비동맹운동의 進路수정문제는 현재 北韓의 對비동맹외교가 겪고 있는 딜레마를 그대로 示唆해주고 있다는 점 등에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北韓은 이번 調整委의상회의가 지난 1월에 소집된 제1차 외상급회의(1.13~15, 니코시아)와 마찬가지로 오는 9월 유고에서 열릴 제9차 非同盟정상회의에 대비한 의사진행조정에 주요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 한반도 문제논의에서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전분위기 조성에도 주력했다.

北韓대표 崔수현은 기조연설에서 한반도문제에 언급, 이른바 「고려민주연방공화국」案이 통일을 위한 최선의 방도라느니, 주한미군철수 및 3자회담실현등을 거듭 강조했다.

崔는 北韓이 내놓은 고려민주연방국案이 『남북이 공동으로 합의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구현하고 있으므로 통일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라고 강변하면서 한반도문제 해결에서 『미국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을 내세워 미국에 대해 그 실제적 조치로 주한미군철수와 3자회담실현등을 역설했다.

그런데 北韓은 한반도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9월의 非同盟전체외상회의(9.5~10. 싸이프러스)에서는 남북연석회의 및 한반도 非核化와 관련한 對美비난, 대화와 협상, 긴장완화와 신뢰증진을 위한 유엔의 합리적조치 등을 역설했던 바 있다. 따라서 北韓이 이번 회의에서 「고려연방국」案의 당위성 부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최근 한국사회의 이른바 「연방제 통일론」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즉 최근들어 민주화열기와 대북정책 변화가능성에 편승해 각종 통일논의가 무분별하다시피 紛紛하고 또한 각양각색의 이른바 「연방제형식」의 통일론이 대두되자 이같은 사회여론을 최대한 이용, 오는 9월의 비동맹정상회의 최종선언문이 될 한반도 조항에 그들의 고려연방국案을 공식문건으로 올려보려는 계산에

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北韓의 이같은 속셈은『…오늘 남조선의 경제·사회계 인사들속에서도 연방제형식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남조선당국도 연방제통일방식을 외면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한 北韓대표의 연설내용에서도 쉽게 看破되고 있는 것이다.

3일간 계속된 이번 외상회의에서는 유고 베오그라드정상회의에 제출한 정치선언(핵전쟁위험제거등)과 경제선언(새로운 국제경제질서확립과 南南협조강화)을 각각 채택했다고 北韓방송이 보도(5.22)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외형적인 성과나 의사조정결과와는 별도로, 北韓의 입장에서 볼때 비동맹운동의 이념퇴색과 내부분열, 그리고 진로수정(활동방법개선)의 불가피성과 이로인해 야기될 비동맹권의 갈등·마찰현상, 나아가 北韓의 입지약화등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운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北韓의 우려는 崔수현의 기초연설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崔는 비동맹운동이 지금까지 해온 활동방법의 개선, 즉 진로수정의 불가피함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로써 야기될 혼란과 갈등현상을 겨냥해 깊은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北韓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이념퇴색과 이로인한 내부갈등이라는 현재의 처지와 함께 나아가 비동맹권을 주요한 외교적발판으로 삼아온 北韓의 미묘한 입장을 집약한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되고 있는 것이다.

北韓대표 崔수현은 이 연설에서 『이번 외상회의를 계기로 비동맹운동의 활동을 적극화하며 그 역할을 높이기위한 공동의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비동맹운동의 근본원칙과 목적을 고수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것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비동맹권국가들간에 표면화되고 있는 「비동맹운동의 새로운 방향정립」이라는 일치된 여론을 의식, 이를 위한 「공동행동지침」마련을 제의함으로써 비동맹권의 변화추세에 北韓도 동조하고 있음을 강변한 것이다.

그러나 崔는 비동맹운동의 활동방법이 「개선」돼야할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활동방법의 개선이 비동맹운동의 근본원칙과 성격을 약화시키거나 통일단결에 沮害를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해서는 절대로 안될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국제사회의 역학관계 변화추세에 따라 비동맹운동의 활동방향이나 방법도 달라질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같은 궤도수정(개선)이 바로 비동맹운동의 「원칙과 성격의 약화」및 「통일단결의 저해」 즉 이운동의 이념적 퇴색과 이로인한 내부분열로 직결될 수도 있다는 경고적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특히 비동맹운동과 비동맹권국가들을 주된 발판으로하여 외교활동을 전개해오면서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대내외에 선전해 오고 있는 北韓의 입장으로서는 비동맹운동의 이같은 성격변화는 바로 그들의 외교적, 정치적 입지를 그만큼 약화내지 壤滅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北韓대표의 연설요지에서에서도 示唆된 바와 같이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비동맹운동의 새로운 개념정립과 기능 및 활동방법 개선문제등이 北韓의 주도하에 깊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北韓은 이같은 논의를 앞장서서 제기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예컨대 9월의 정상회의

92 統一教育

에서 최종결정될 오는 91년의 차기외상회의 평양유치작전을 이미 전개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내외통신 642호, '89. 6. 2)

北韓·이란間 경제협력강화

하메네이 이란대통령의 최근 北韓방문 (5.14~17)은 그동안 쌍방간에 추진돼오던 경제협력확대방안을 매듭짓는 주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하메네이 대통령의 평양방문 기간중에 조인된 경제·과학기술협조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록에는 그동안 쌍방간에 협의를 거쳐 합의된 이 부문의 협력방안들의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 것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北韓은 관례대로 1차회의록의 조인(5.17) 사실만 보도했을뿐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일체 언급이 없었으나 이란측은 지난 5월 21일 쌍방간의 올해 교역규모와 하메네이 대통령 방북시 합의된 협력사업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그 실체를 드러냈다.

하메네이 대통령의 北韓방문을 수행해 北韓과의 경제협력문제 협의에 중추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란정부 건설相 포르제시는 이란 관영 IRNA통신과의 회견에서 이번에 조인된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1차회의議定書(회의록)에 따라 北韓은 이란으로부터 매년 1백만톤의 원유를 도입하고 그 대신 15가지의 기계공구플랜트와 1천톤급 트롤어선 5척 및 철강, 강판, 강철봉등 강철제품 40만톤을 이란에 수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또한 北韓은 이란의 전후복구사업으로 추진하는 반다르 아바스와 케심섬을 연결하는 교량의 설계, 1천M/W급의 발전소 건설 및

강주변의 준설공사, 안잘리의 카스피안항구 조선소건설, 반다르 아바스어항 건설등 이란측과 협력하여 각종 건설사업에 참여(협력)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라고 이란통신이 보도했다.

한편 모스크바방송도 지난 5월 25일 이란 IRNA통신의 이같은 보도내용을 확인하면서 덧붙여 올해 쌍방간의 교역규모가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어나는 5억달러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전 한바 있다.

쌍방간의 교역규모에 관해서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末 이란을 방문한 바 있는 北韓대외경제사업부장 鄭송남이 올해 약 10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이번 이란측의 공식발표와는 2배가량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는 北韓의 그같은 성급한 「요망사항」이 여러차례의 협의과정을 거치는 동안 절반수준으로 하향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北韓과 이란간의 각분야에 걸친 협력관계가 긴밀해지기 시작한 것은 이란·이락戰의 발발(80년 9월)이 주요한 계기가 됐다. 北韓은 이란에 대해 反帝투쟁이란 명분하에 무기판매등 군사지원과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그 대가로 이란으로부터 원유도입의 확대라는 실리를 추구해왔다('80~'88간 원유도입량은 6백 30여만톤으로 집계).

특히 지난해 8월 이란·이락戰의 종식과 더불어 이란의 전후복구사업을 골자로한 경제개발5개년계획(89~93년) 추진과 이에 참여를 갈망해온 北韓측의 이해 일치로 쌍방간의 경제협력확대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이번 하메네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그 구체적인 계획들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물론 北韓과 이란간에는 이같은 경제적인 측면과 함께 외교적

으로 反美투쟁 및 反核·평화운동에서의 행동통일, 군사적으로 이란에 대한 北韓의 협력(무기판매등) 등에서 쌍방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기는 하다.

이란·이락戰이 끝난 지난해 8월이후 쌍방간의 협력강화 추세는 1년도 못되는 짧은기간동안 고위급 인물들의 빈번한 교환방문에 이은 하메네이 대통령의 방북등 일련의 숨가쁜 움직임이 보여 주듯 급속도로 진전되는듯 했다.

'88년 9월 이란 수산대표단의 北韓방문(수산부문협조합의서 조인)을 시작으로 12월에 이란 광업·차관과 광업 및 금속공업相等이 잇달아 평양을 방문(광물분야 협력양해 각서 조인)했다. '88년말과 올해초에 걸쳐 北韓의교부장 김영남과 대외경제사업부장 鄭송남이 이끈 대규모 외교경제실무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해 이 부문의 협력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北韓은 이란 회교혁명10주년기념일을 맞아 金日成大총장 朴관오를 대표로한 대규모 축하사절단을 파견하는등 이란에 대해 추파에 가까운 친선 제스처를 과시하기도 했다.

이같은 빈번한 고위실무인사 교환방문을 통해 北韓과 이란은 지난3월 쌍방간 「경제과학기술협조를 위한 공동위원회」설치에 기본적으로 합의한데 이어 하메네이 대통령의 방북 직전인 5월초 北韓 무역부부장 李성록과 이란 건설상이 상호방문해 제1차회의 합의사항 導出을 위한 실무협의과정을 거쳤다.

평양을 방문한 하메네이 대통령과 金日成간의 3차례 회담에서 쌍방간 협력확대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이 합의되고, 하메네이 대통령을 수행한 이란측 공식대표단(외상, 국방상, 주택 및 도시건설상, 건설상등)과 北韓측 대표단간의 각 부문별 실무접촉을

거친 끝에 제1차회의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이에 조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란측이 발표한 경제협력사업의 내용들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안정적 원유도입 문제와 교역량의 확대, 그리고 이란의 전후복구사업에 대한 北韓의 참여문제 등이다.

이란·이락戰이 계속되던 '80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동안 北韓이 이란으로부터 도입한 원유의 전체량은 6백32만톤으로 연평균 70만톤 수준이었으며 그나마 전쟁상황의 변화에 따라 도입물량이 증감되는등 불안정한 상황의 연속이었다. 이번 쌍방합의에 따라 北韓이 이란측으로부터 연간 1백만톤의 원유를 공급받게 된것은 도입량의 확대와 함께 안정적 공급보장이란 점에서 北韓의 에너지難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지난해 2억2천만달러 수준이었던 교역규모(北韓의 對 이란수출 4천 2백만, 수입 1억7천8백만달러로 추정)를 올해는 그 2배가 넘는 5억달러수준으로 신장시킬 목표아래 北韓은 주로 원유도입 확대를 비롯, 기계공구플렌트, 트롤어선5척 (1천톤급), 철강제품40만톤등을 이란에 수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교역량확대는 이란의 전후복구사업추진에 따라 무리없이 달성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北韓이 가장 욕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란의 전후복구사업 참여문제는 이번 하메네이 대통령의 평양방문 및 金日成과의 회담등에서 아마도 상당한 보장을 받아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란측이 이번에 발표한 아바스와 케심섬 연계교량설계, 발전소건설 및 준설사업, 조선소건설등 北韓의 참여가 확실시되는 몇

가지 사업외에도 이 기초사업참여를 기득권으로 하여 연결되는 각종 건설사업 및 설비·자재수출, 예컨대 교량설계에 이은 건설공사, 조선소건설에 필요한 설비·철강재등의 수출, 원유도입과 병행하는 北韓의 원유탐사 및 채취기술인력양성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같은 실적을 바탕으로한 주택등 각종건설사업 참여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한국의 對 이란경제협력 및 전후복구사업 참여문제와 尖銳한 대결이 예상된다 하겠다.

(내외통신 643호, '89. 6. 9)

主 要 動 向 日 誌

(6~7月)

日 字	動 向
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대표단 (단장: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동독向發 ● 노동당대표단 (단장: 당비서 계응태) 쿠바向發
6.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종교인협의회 (위원장: 최덕신) 남북종교인 회담 제의
6.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화학공업단대표단 (단장: 화학공업상 '준테트위법스키') 방북
6.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日成, 북한주재 이란대사관 방문 (‘호메이니’의 죽음에 조의 표시) ● 원산~금강산간 고속도로 완공 ● 자이르주재 북한대사에 이현식 임명
6.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공업대표단 (단장: 기계공업부장 계형순) 소련방문후 귀국 ● 철도운수대표단 (단장: 철도부장 박용숙) 소련방문후 귀국
6.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日成, 방북중인 ‘시아누크’(전 캄보디아주석)와 면담 ● 오진우(인민무력부장). 동독방문후 귀국 ● 노르웨이 주재 북한대사에 신의광 임명

- 6. 9 • 黨제6기 16차 전원회의 개최 (6.7~6.9)
- 국가검열위 위원장에 이용무임명 (전임자 현무광)
- 알바니아 주재 북한대사에 김우중 임명
- 6. 10 • 노동당의 업적에 대한 연구토론회 진행
 (2·8문화회관)
- 6. 11 • 루마니아 주재 북한대사에 문병록 임명
- 6. 12 • 정부대표단 (단장: 체신부장 김희정) 월남 向發
- 여성대표단 (단장: 여맹서기장 강점숙) 체코 向發
- 6. 13 • 조선 만풍 합영회사 조업 (뚝자리등 경공업 생산)
- 6. 14 • 경제대표단(단장:이흥엽)우간다 방문 마치고 귀국
- 6. 15 • 김영삼·허담간 모스크바 회담 보도 (중앙방송)
- 6. 16 • 계응태(당비서). 정송남(대외경제사업부장)
 쿠바, 세이셸 방문 마치고 귀국
- 6. 19 • 전금철 (남북국회회담 북측대표), 채문식 (남측대
 표)에게 제18차 준비접촉 제의·서한 수령통보
 (6.20 판문점)
- 6. 20 • 전금철, 한국측에 「편지」 전달
- 6. 21 • 북한 - 베트남간 경제 및 과학 기술 협조위. 창설
 에 관한 협정 조인 (하노이)
- 6. 22 • 손성필 (北赤위원장), 韓赤총재 앞으로「편지」전달
 - 제11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위한 실무 대표
 회담을 7.14 판문점에서 갖자고 제의
- 6. 24 • 가나 청년 및 체육相 '과믹스 아탕멘싸' 방북
- 6. 25 • P.L.O 의장 '아라파트' 방북 (金日成과 면담)

- 6. 27 • 당 정치국, 중앙인민위원회 연합회의 개최
- 제9차비동맹정상회담 관련대책토의 金日成주재
- 6. 28 • 마다카스칼 수상 '라마하트라 빅토르 리리나' 일행 방북
- 6. 29 • 金日成, 탄자니아 대통령 '니에테제' 일행과 회동
• 북한 - 남 예멘 인민위 間 협조 협정 조인
- 6. 30 • 7월평양집회 참가자 임수경(전대협 대표) 입북.
- 7. 1 • 짐바브웨 대통령 '로버트.G. 무가베' 일행 방북
- 7. 2 • 스리랑카 및 멜다이크 주재 신임 북한대사에 유대
섭 임명
- 7. 4 • 金日成 탄자니아 대통령 '니에테제' 와 단독회담
- 7. 5 • 북한 - 잠비아 黨, 政대표단間 회담 진행 (평양)
• 평양축전 관련 국제 민속놀이 개막(대성산유원지)
- 7. 7 • 金日成, 조총련의장 한덕수 일행과 면담
- 7. 8 • 평양축전 폐막
• 조국평화통일위 「성명」 발표
- 徐敬元 의원의 밀입북을 공식 확인
- 7. 9 • 김일성, 평양축전 참가한 「조선학생 대표단」과
면담
- 당비서 계웅태, 허담, 최태복, 社勞靑위원장
최용해등 배석
- 7. 10 • 북한노동당 - 잠비아 민족통일독립당 間 상호협조
에 관한 의정서 조인
- 7. 11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장), 이란 및 파

키스탄 向發

- 7. 12 ● 북한 - 알바니아 間 '89~'90년도 문화교류계획서
조인 (평양)
- 7. 13 ● 북한 - 유엔개발계획(UNDP) 間 피복설계 기술
현대화와 통신기술분야 협조서 조인 (평양)
- 7. 18 ● 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 북측대표단 성명발표
- 8월 중순 판문점에서 제8차 예비접촉을 갖자고
제의
- 7. 20 ●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북측대표단
성명발표
- 8월末판문점에서 제3차 예비회담을 갖자고 제의
- 7. 21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평화대행진」
출정선언 (백두산)
- 7. 22 ● 니제르 주재 북한대사에 김당수 임명
- 7. 23 ● 체육회담 북측대표단 성명 발표
- 8.10 판문점에서 제3차 체육회담 개최 제의
- 7. 24 ● 손성필 (北赤 위원장), 韓赤총재에 편지 전달
-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문제를 협의
하기위해 8.2 판문점에서 실무접촉을 갖자는 한
국측의 제의를 수락
- 7. 25 ● 金日成, 離任하는 駐 이란대사 '사이드 모하마드
테자'와 면담
- 루안다 대사에 전영운 임명
- 7. 26 ● 가나 대사에 이해섭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옥 (부주석), 니카라과서 귀환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파키스탄 방문
7.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달현 (정무원 대외경제위원장), 소련 向發
7.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기복 (중앙인민위원회 경제정책위원장) 이디오피아 방문
7.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남 (외교부장), 유엔 정치 및 안전보장이사회 담당. 부사무총장 ‘와실리 다프로슈프’ 회동

共産圏 및 周邊動向

- ‘고르바초프’ 서독방문 동향
- 中國黨 指導部 개편동향 분석
- 폴란드, 최초의 非共産聯政추진 동향

共産圈 및 周邊動向

고르바초프 서독방문 동향

1. 최근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지난 '81年 브레즈네프의 서독 방문이후 최초로 서독을 방문 (6.12~6.15), 『새로운 政治的 思考』를 통해 戰後 유럽의 分裂克服과 東·西 兩陣營의 軍縮 및 經協強化등을 촉구하는 『共同政治 宣言文』에 서명하고, 『베를린 장벽의 철거가능성』에 대해 前向的 立場을 示唆하였음.

- ※ 수행원 : ●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
- 아코블레프 (정치국원 : 이념 · 국제정치)
- 실라예프 (연방각료회의 부총리)

공동정치선언문의 요지

- 戰後 유럽圈의 分裂終熄을 위한 상호노력 경주
- 東·西 兩陣營의 구체적 軍縮措置 제시
 - 美·蘇 戰略 核武器 50% 감축
 - 유럽주둔 재래식 군사력을 현 수준 미만으로 균형 減縮
 - 전세계에 통용될 검증가능한 화학무기 금지조치 강구
 - 화학무기 보유 및 핵무기 실험의 금지
- 환경보존 및 국제테러 방지를 위한 공동노력과 상호신뢰 구

축을 위한 추가조치 강구

- 東·西 兩陣營間 경제협력 강화
- 인간의 존엄성과 모든 권리 및 각 民族의 自決權 존중
- 非歐洲地域 분쟁해결을 위한 『國際危機管理體制』의 창설
- 兩國間의 협력에 있어서의 배타성 배제
- 평화롭고 상호협력하는 歐洲建設

2. 고르바초프의 主要 發言

가. 서독수상주최 만찬에서의 연설(6. 12)

- 부시 美 대통령의 유럽 배치 재래식 무기감축 제안을 환영하지만, 이 제안은 SNF의 부분적 감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SNF 감축문제에 관한 쌍무회담 개최를 희망한다.
- '90년까지 유럽에 배치된 東·西 兩軍을 감축하자는 부시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내달 정상회담 이후 구체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 西獨, 蘇聯 兩國은 과거의 경쟁관계와 독일 분단때문에 양국간 관계개선이 저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나. 記者會見(6. 15)

- 베를린 장벽은 東·西 關係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지 못하며 장벽을 구축하게 했던 여건들이 사라지는 대로 가능한 급속히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 오늘날 유럽의 상황은 역사적인 사실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러나 유럽대륙은 현재 政治變革을 거치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시간이 말해 줄 것이다. (유럽이 單一 獨逸을 다시 인정할 날이 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評 價

- 금번 西獨·蘇聯 頂上間에 署名된 『共同政治宣言文』은 지난 '70년 브란트 서독 수상의 주도로 체결된 『獨·蘇條約』이 이번에는 고르바초프 주도로 이루어진 『제2단계』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금번 방문을 통해 고르바초프는 東·西間의 신데땅뜨 무드속에 서독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독일 문제가 微妙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특히 『共同政治宣言』을 통해 『各民族의 自決權 認定』을 천명하고, 기자회견에서 『베를린 장벽의 제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지난 '87년 『고르바초프의 聯邦制的 中立化 統獨方案 研究 指示說』과 연관해 볼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됨.

◀참 고▶

西獨言論, 고르바초프의 東·西獨 聯邦制 檢討指示(說) 報道

- 서독 주간지 슈피겔('87. 10. 5)은, 최근 고르바초프의 東·西獨 聯邦制 檢討指示(說)과 관련하여 서독 내독관계성 정무 차관 (오프리트·헤니히) 으로부터 취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도함.

報 道 要 旨

- 고르바초프는 兩獨 聯邦의 가능성과 서독 및 동독으로부터 나토軍, 바르샤바軍을 각각 철수시킬 것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를 지시함.
 - 연구팀 : 발렌틴 팔린 (노보스티 통신사장)
게오르기 아르바토프, 니콜라이 프르투갈로프, 다니엘 멜니코프

- ※ 이에 앞서 '87. 9. 24. 헤니히 내독관계성 차관은 한 연설에서 『서독이 나토를 탈퇴하면 소련도 동독주둔 소련군을 철수시키고 兩獨 統一方案을 提示하는 것을 檢討中』이라고 밝힘.
- ※ 駐제네바 蘇유엔 대표부 참사관 (스타니슬프 체르니아프스키)은 '87. 10. 2. “不遠間 베를린 장벽의 철거 가능성”을 示唆한 바 있음.

中國 黨 指導部 改편동향 분석

1. 中國共產黨은 지난6월초의 示威流血鎮壓事態 수습과 관련하여 제13기 중앙위 4차 총회(6. 23~6. 24)를 개최하였음. 이 회의에서 중공당은 趙紫陽(총서기), 胡啓立(정치국 상무위원) 등의 모든 당직을 해임하고 상해시 당 총서기 江澤民을 신임 총서기로 선출하는등, 정치노선의 강경보수화를 示唆하는 듯한 당指導部 改編을 斷行하는 한편, 향후 개혁·개방정책의 계속 추진과 사회주의노선 堅持를 재확인하는 내용의 會議 『公報』를 결의하였음.

2. 지도부 인사개편 내용을 보면

- 신임 당 총서기에 江澤民 (정치국원겸 상해시 당 총서기) 선출
- 정치국 상무위원에 기존의 李鵬(총리), 喬石(기율 검사위 서기), 姚依林(부총리)외에 江澤民(총서기), 宋平(당 조직 부장), 李瑞環(천진시장)등 6명으로 증원
- 서기처에는 기존의 喬石, 溫家寶 (판공청 주임)외에 李瑞環, 丁關根(정치국 후보위원 겸 대만 辦公室 주임)등 4명으로 축소(胡啓立, 芮杏文, 閻明復은 해임)
- 趙紫陽과 胡啓立은 黨籍이외의 모든 黨職에서 해임.

- 趙紫陽 당직해임 : 총서기, 정책국상무위원, 정치국원, 중앙위원, 군사위 제 1부주석
- 胡啓立 당직해임 : 정치국 상무위원, 서기, 정치국원, 중앙위원

評 價

1. 금번 인사개편의 특징과 중국정국 전망

- 江澤民이 이례적으로 2단계나 도약하면서 총서기에 선출된 것은 그의 『정치적 보수 강경파·경제적 개혁파』로서의 입장이 향후 중국이 선택할 국가노선에 附合된다는 이유와 함께, 그가 李先念(전 국가주석)의 사위라는 혈연적 배경도 작용했을 것임.
- 새로운 당지도체제는 鄧小平, 楊尙昆, 陳雲 등 혁명元老의 후견을 받는 보수성향의 개혁 실무진으로 구성, 중국특유의 『老人幫 政治』의 유지와 함께 당관료의 전문화 및 지도부의 세대 교체를 시도한 것으로 보임.
- 금번 지도부 개편에서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수를 종전 관례와 달리 짝수(보수와 3, 신진개혁파 3)로 한것은 앞으로 鄧小平의 親政이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임. 또한 新任 江 總書記가 군이나 당내 지지기반이 없어

권력 투쟁은 불가피할 것이며, 따라서 금번 지도부 조직 역시 잠정적일 수 밖에 없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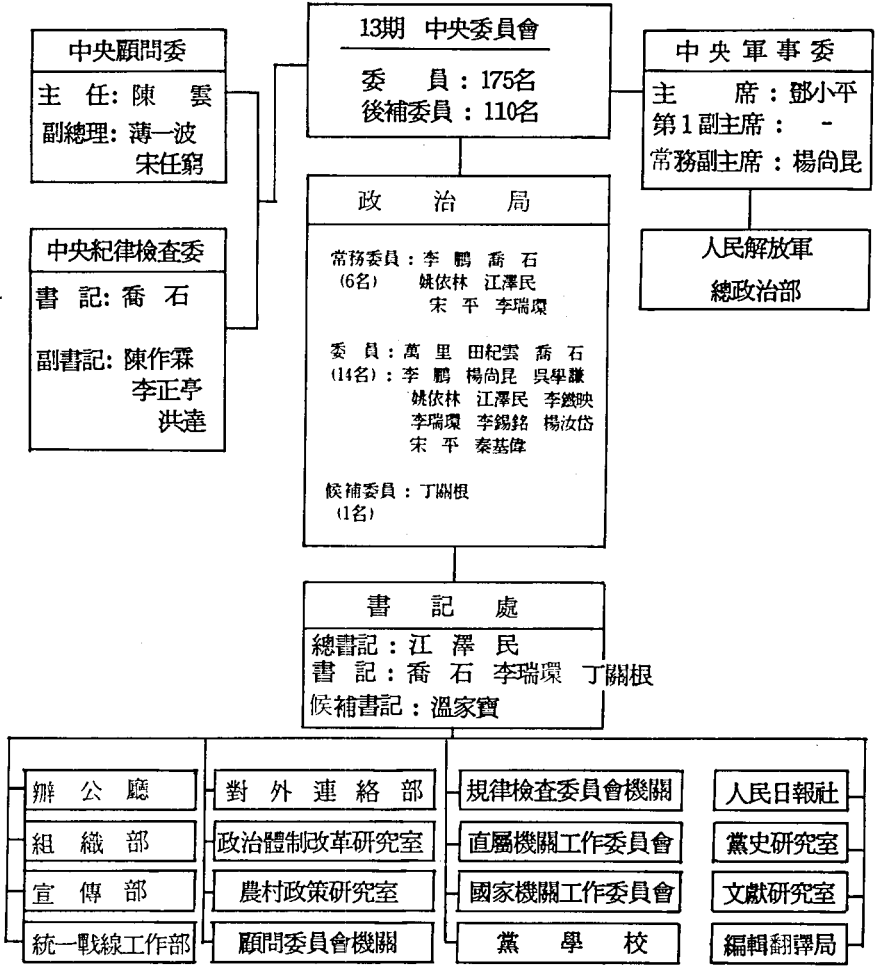
- 어쨌든, 중국은 政經分離에 입각한 「제한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난번 「북경사태」를 유발했던 근본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채 여전히 정국불안의 불씨로 남게되는 결과가 될 것임.

2. 중국의 변화가 한반도 문제에 미치는 영향

- 北韓의 『개혁·개방』 시도를 유예시킬 것임. 北韓내 온건개혁파의 발언권을 상당히 위축시킬 것이기 때문임.
또한 중국 「對北韓 開放壓力」이 감소될 것이며, 서방 국가들이 對中國 경제제재로 인하여 중국을 경유한 北韓의 對西方 經協 가능성이 감소될 것이기 때문임.
- 미·중 관계가 악화될 경우, 북경에서의 美·北韓 접촉이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있음. 상대적으로 소련·일본의 對韓半島 역할 및 영향력이 상당히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
- 北韓은 결국, 소련·동구 방식의 『개혁·개방·민주화』 모델과 중국방식의 『사회주의 기본노선하의 경제개혁』 모델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중국 모델을, 장기적으로 蘇·東歐 모델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임.

◀ 참 고 ▶

中國의 黨機構 및 主要人物(1989. 6 現在)



◀ 참 고 ▶

中國黨 政治局 常務委員 人의事項

① 李 鵬 (60) : 保守派

- '29년 10월 사천성 출생
- 周恩來 전 총리의 양자
- '48년 - '55년 소련 모스크바 대학
- '80년 전력공업부 부부장
- '81년 전력공업부 부장
- '82년 수리전력부 부부장
- '82년 당중앙위 위원
- '85년 국가교육위 주임, 당정치국 위원, 서기처 서기
- '87년 국무원 총리대행
- '88년 총리로 선출

② 江澤民 (62) : 政治的 保守, 經濟的 改革派

- '26년 7월 江蘇省 양주에서 출생
- 李先念 (前 국가 주석)의 사위
- '47년 상해교통대학 (전자기계과) 졸업
- '55년 소련유학, 스탈린 자동차 공장 현장 연수
- 瀋陽 자동차공장 기사, 상해전자장비 연구소 부소장
- '78년 중국 기계공정학회 부이사장
- '80년 외국 투자관리 위원회 위원
- '82년 전자공업부 부부장
- '83년 전자공업부 부장

11.1 統一教育

- '85년 7월~'87년 11월 상해시장
- '87년 11월 당중앙위원, 정치국위원, 상해시 黨서기
- '89년 6월 黨 총서기

③ 喬石 (65): 政治的 保守, 경제개혁에 대해서는 중립적 태도

- '24년 浙江省 정해현 출생
- '40년 중국공산당 입당
- '49년 浙江省 항주시 청년공작위 서기
- '63년 당 대외연락부 부국장, 국장
- '78년 당 대외 연락부 부부장
- '82년 4월 당 대외 연락부 부장
- '82년 9월 당중앙 서기처 후보서기
- '85년 8월 당중앙 서기처 서기
- '86년 4월 국무원 부총리 겸임
- '87년 11월 당정치국 상무위원
- '88년 4월 국무원 부총리 해임되고 黨務專任으로됨.

④ 姚依林 (72) : 政治的 保守, 경제적 개혁파

- '17년 9월 安徽省 출생
- '34년 淸華大 화학과 입학
- '35년 중국공산당 입당, 동년 12월의 『12.9』 학생운동지도
- '37년 天津市 위원회 서기
- '49년 무역부 부부장

- '52년 상업부 부부장
- '56년 중앙재정무역 공작부 부부장 겸임
- '58년 제8기 중앙후보 위원
- '59년 4월 정치협상회의 제3기 전국위원회 위원
- '59년 9월 財務辦公室 부주임 겸임
- '64년 12월 정치협상회의 제4기 전국위원회 위원
- '73년 대외무역부 부부장
- '78년 상업부 부장
- '79년 국무원 부총리
- '80년 2월 서기처 서기
- '80년 8월 국가계획위 주임겸임
- '82년 9월 정치국 후보위원, 서기처 서기
- '85년 정치국 위원
- '87년 11월 정치국 상무위원
- '88년 4월 국무원 부총리 재임

⑤ 宋 平 (72) : 신중개혁론자

- '17년 산둥성 출생
- '34년 칭화대학 수학
- '37년 공산당 입당
- '30년대 毛澤東 게릴라 전으로 延安 본부에서 근무,
延安 막스·레닌 연구소에서 수학
- '50년대 노동과 기획분야에서 활동
- '57년 6월 국가계획위원회 부주임
- '72년 江蘇省 당서기

- '81년 2월 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주임
- '83년 6월 국가계획위원회 주임
- '84년 5월 국무원 환경보존위원회 부주임
- '87년 6월 당 중앙조직부 부장겸임
- '87년 11월 정치국 위원

⑥ 李瑞環(54) : 中立.

- '34년 天津市 출생
- '60년 북경 건축공정학원 수학
- '58년부터 6년동안 북경시 제3건축 공사에서 15년간
목공근무 (모범노동자)
- '73년 북경시 總工會 부주임
- '77년 천안문 광장 毛澤東 기념상 건립
북경인민대회 대의원
- '80년 전국청년 연합회 부주석
- '81년 10월 天津市 위원회 상무위원
- '82년 12월 天津市長
- '83년 3월 天津市 당위원회 서기
- '83년 4월 天津市長에 재선
- '87년 11월 당중앙위원, 정치국위원

폴란드, 최초의 非共産聯政 추진동향

1. 야루젤스키 폴란드 대통령은 8. 17. 자유노조 지도자 바웬사와의 회담에서 자유노조·통일농민당·민주당에 의한 연립정부 구성 제의를 수락, 동구공산정권사상 40여년만에 처음으로 非共産政權 수립이 확실시되고 있음.

이렇게 될 경우, 폴란드에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공산당 대통령과 국민의 지지를 얻은 비공산 연립내각이 공존하는 『東歐版 保·革 同伴政府』가 출범하게 되는데, 이러한 東歐 最初의 정치실험은 장차 폴란드 뿐아니라,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蘇·東歐圈 전체에 적지않은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보임.

금번 폴란드 정치개혁에 대해 蘇聯과 中國은 그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때마침 東獨側은 黨機關紙 (노이에스 도이칠란트, 8. 18)를 통해 『蘇聯의 체코 침공('68년)에 대한 헝가리, 폴란드의 재평가』 움직임을 비난, 은근히 위협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사태의 추이가 주목됨.

2. 最近 폴란드 政局變化 經過

- 89. 6. 총선거에서 자유노조는 下院의 總460個 議席中 자유競選으로 선출하는 161席 전체를 확보, 압도적으로 승리.

- 7. 25. 바웬사, 야루젤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공산당 주도의 연정참여 거부, 자유노조 주도의 연립 정부수립 주장
 - ※ 下院 460議席中 공산당 173席(38%), 自由勞組 161席(35%)이기 때문에, 兩側 모두 과반수 확보를 위해서는 76席의 統一農民黨(16%) 및 27席의 民主黨(6%)등과의 提携가 불가피한 상태임.
- 8. 1 폴란드 정부의 식료품가격 자율화 조치로 최고 10배의 가격폭등, 이에 항의하면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 파업 확산, 경제사정 급격히 악화
- 8. 14 키스차크首相 辭任發表
- 8. 15 바웬사, 키스차크首相 辭任 결정을 환영. 사회가 원한다면 首相職을 受諾하겠다고 발표. 聯政構成時 공산당에게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방·내무장관등의 閣僚職을 할애하되 經濟閣僚職은 非共產系 人物이 맡아야 한다고 발표.
- 8. 17. 공산당과의 聯政을 추진해오던 統一農民黨·民主黨 등은 태도를 바꿔 自由勞組 主導에 의한 非共產聯政 樹立 방침에 합의.
- 8. 18. 야루젤스키 대통령, 타데우즈 마조비키를 非共產 聯政의 總理로 指名.
 - ※ 마조비키 次期 首相(57세)은 바웬사의 側近人物이며, 自由勞組 機關誌 『티고드니크 솔리다르노스크』 編輯長으로서, 카톨릭 지식인 기자출신 인물임.

3. 蘇聯 및 中國의 反應

◀ 蘇 聯 ▶

- 자유노조가 비공산정부 구성을 시도하면서 폴란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소련정부는 강력하고 안정된 우방인 폴란드를 원한다. (프라우다, 8. 14)
- 바웬사의 비공산정부수립 방안은 지금까지는 합리적이다. 소련은 폴란드 국내문제에 간여치 않을 것이며 폴란드의 당면문제 해결은 폴란드인 자신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폴란드는 소련의 이웃국가이며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폴란드의 사태발전을 銳意 주시하고 있다. (蘇외무부 대변인 기자회견, 8. 16)

◀ 中 國 ▶

- 뿔스카 단결 노조지도자들의 행동은 심지어 노조활동자들의 비난까지 받고 있으며, 이 나라에 장기적인 정부위기를 초래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프라우다 논평을 인용보도, 북경방송, 8.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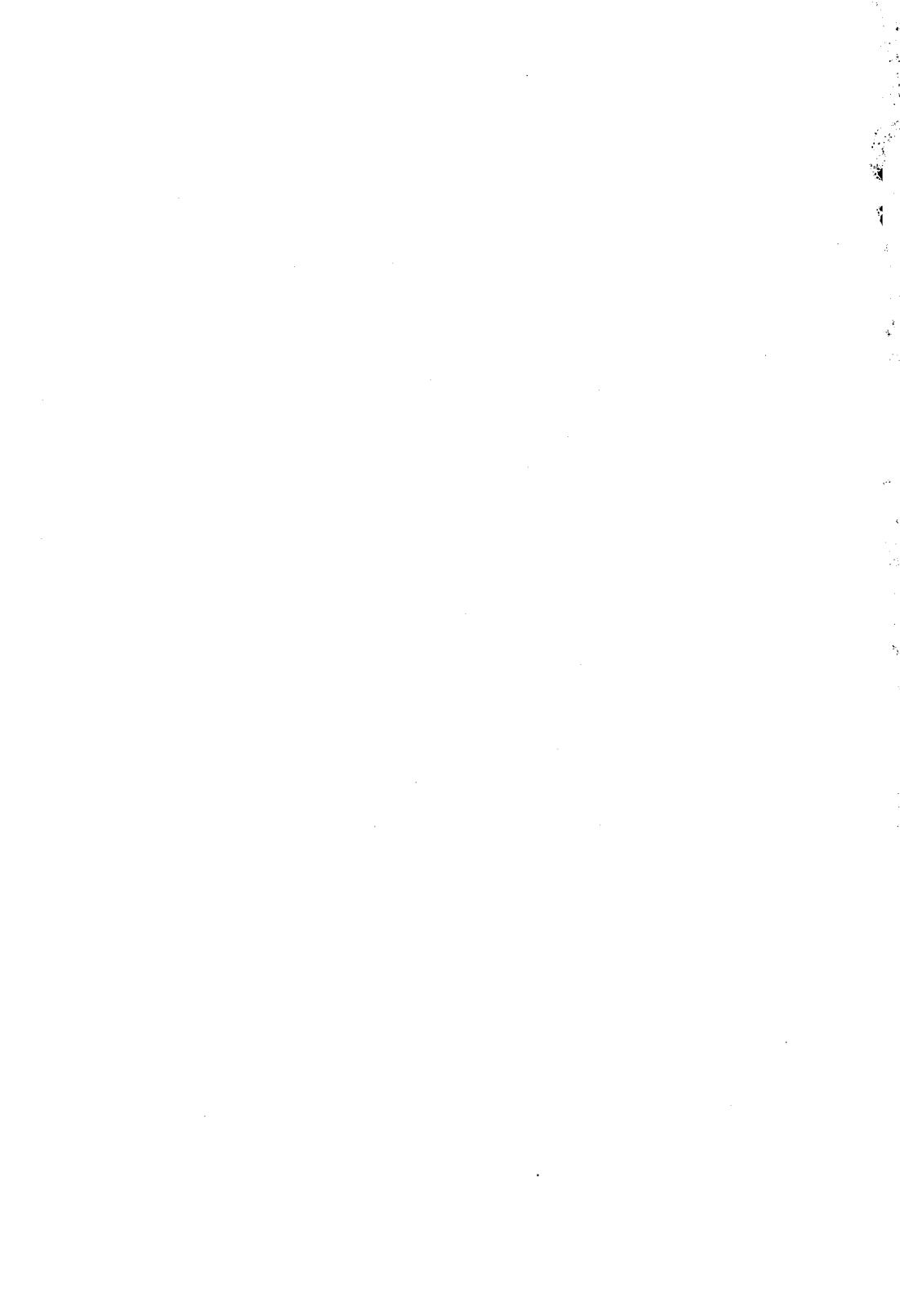
※ 北韓은 폴란드의 정국변화에 대해 사실보도 뿐아니라 전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

 價 評

- 蘇聯의 반응을 보면, 지난 7月 고르바초프의 불란서 방문시, 『東歐地域의 非共產政府 출현을 容認』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언급했지만, 정작 폴란드에서 非共產政府 출현이 확실히 되어가자 지난 14日에는 프라우다를 통해 『非難』 논조를 보였음.
 다시 15日에 바웬사가 『바르샤바 同盟 不脫退』와 『外務 및 國防長官은 공산당에게 割愛』한다고 발표하자, 蘇聯 외무부 대변인은 『폴란드 정치개혁에 대해 불간섭』 입장을 표명함.
 이러한 소련의 『변덕』은 蘇聯 체제내부에 『정치개혁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확고한 방침이 결여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東歐 및 蘇聯内部의 民主主義 운동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어쨌든 금번 폴란드의 非共產政府 등장은, 단순히 東歐圈의 한 국가의 정치 『혁명』이라는 象徵的 의미 뿐 아니라, 높은 인플레이와 장기적인 經濟沈滯에 빠져있는 공산사회가 非共產政府 통치아래 효과적인 사회질서 유대와 경제안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와, 또한 공산국가들의 『정치개혁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試金石이 될 것임.

資 料

-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統一構想과 提議
 - 이대경 목사 귀환 면담 결과
- 임수경 入北 관련 문제성 언동 사례
- 「해외혁명 지도부」의 實體와 親北·反韓團體
 - 北韓의 상반기 경제활동 종합
 - 北韓의 核武器 개발능력 평가
- 亞. 太地域에 있어서의 새로운 秩序
(국제 관계 연구소 주최 제18차 국제학술회의)
- NEW TIMES 「韓半島 情勢」 記事分析.



資

料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統一構想과 提議

- 盧泰愚大統領의 統一構想, 이에 따라 앞으로 발표될 새 統一方案의 줄거리를 처음 체계적으로 提示
- 建國以後 이제까지의 南北韓 統一方案을 批判, 수렴하는 바탕 위에서 우리의 역사와 현실상황에 비추어 타당하며 民族的 合意가 이루어질 수 있고 現實可能한 統一의 방향을 밝힘.

-
- 制憲憲法 - 北韓에서 선거가 가능할 때를 대비하여 國會議席 100席을 꺾석으로 둬.
 - 1954년 제네바 國際會議 - 유엔감시하 南北韓 人口比例 自由總選에 의한 統一政府 수립
 - 1972년 - 7.4 共同聲明
 - 5共和國 -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
 - * 北韓 - 高麗民主聯邦共和國 창설방안
-

- 和解協力の 시대를 열기 위한 北의 路線 轉換.
북한동포의 자유 인권보장 요구
- 응할 때 우리가 「劃期的 措置」
- 對話를 당장 正常化하기 위한 對話姿勢 是正 촉구

1. 統一國家의 像

- 「6천만 民族成員 모두가 主人, 각자의 자유와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民主國家」
「自由와 繁榮이 넘치는 나라」
「겨레 모두의 尊嚴이 보장되는 자유로운 나라」
 - 특정계급, 집단이 主導的 地位를 갖거나 獨裁를 하는 體制 否定
- 單一統一國家(「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統一」)
 - 南北間에 정치적 통합의 여건이 성숙될 때 民主的인 원칙과 절차에 따라 통일국가를 만듦.
 - 聯邦制가 아님. (理念과 體制가 다른 聯邦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2. 統一方案에 대한 構想 提示

가. 統一의 原則

- 自主 - 民族自決의 정신
- 平和 - 武力使用 배제
- 民主 - 民族大團結 도모

나. 中間段階 : 民族共同體의 回復, 發展

- 不信과 敵對의 장벽이 존재한다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
- 最終 統一國家 完成에 이르기까지 단절된 民族共同體 회복 발전을 위한 단계 필요
 - * 統一은 단순한 國土의 接合이 아니라 民族이라는 人間集團間的 和解와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인식에 근거
- 單一國家로의 統一이라는 목표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 두개 體制 共存을 永久化하고 분단현실 개선과정을 무시하는 北韓의 「高麗民主 聯邦共和國 創設方案」(80. 10발표)과는 현격한 차이
 - * 北韓은 高麗聯邦制를 統一國家의 最終形態로 제시(北韓側도 50年代까지는 完全統一까지의 과도적 장치로 聯邦制 주장)
- 최종 목표인 完全統一國家 수립까지의 과정을 명확히 연결함으로써 기존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의 미비점 보완
 - *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에서는 “남북관계 잠정협정” 체결로 남북간의 공존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南北共存段階에서 最終 統一段階로 연결되는 과정이 불명확

다. 統一의 過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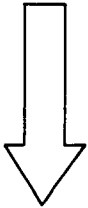
分斷 - 對決, 敵對狀態



- 國土分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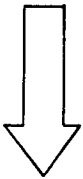
- 6·25動亂 - 軍事對峙, 전쟁의 위험, 관계단절상태
- 불신, 비방, 체제전복 위협, 도발 테러

民族共同體 回復段階



- 民族和解, 協力の 時代
- 相互認定
- 共存共榮
- 개방, 교류, 협력을 통한 民族共同體 발전
- 남북간의 다각적 관계, 協力體制 진전 사회, 문화, 경제적 공동체 실현 政治的 統合與件 성숙

統 合 過 程



- 民主的인 원칙과 절차에 따라...民族大團 合 도모
 - 平和的으로...戰爭이나 상대방 전복배제
 - 自主的으로...民族의 뜻, 力量에 의해 民族自決의 精神에 따라

統 一 國 家

- 6천만 民族成員 모두가 主人이 되며, 개 인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民主國家.
- 聯邦 아닌 單一統一國家

*구체적 내용은 새 統一方案에서 발표
됨.

라. 和解 統一의 여건조성

- 새 和解와 統一의 政策 일관성 있게 밀어감.
- 우리의 統一力量 結集 增大, 忍耐, 努力.
- 友邦과의 關係 강화, 北方政策 추진
- 공산세계의 개방, 改革물결과 New Detente 潮流
한반도 주변정세와 세계의 변화

*북한의 변화, 개방은 시간의 문제

저해요인 : 북한의 남조선 적화통일노선 우리사회 내부세
력에 의한 북의 誤判 幻想 부추김.

3. 北韓의 路線轉換, 自由, 人權保障 촉구

- 南朝鮮 赤化路線 포기
일체의 對南挑發, 우리에 대한 顛覆企圖 중단
 - 북한동포의 자유, 인권보장
 - 어떠한 정치체제하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보편적 가치
 - 民族共同體 回復에도 선결과제
- *북한이 응할 때 平和統一與件을 조성할 「획기적 조치」

4. 당장 對話를 正常化할 수 있도록 北韓의
對話姿勢 是正 촉구

- 우리 내부의 極烈勢力 선동
몇몇 그들 同調者를 密入北시켜 對南攪亂을 책동하는 따위의
反對話的 行爲 중단
- 南北當局間 通路를 통한 각 분야의 폭넓은 交流, 關係 改善

이대경 목사 귀환 면담 결과

다음 내용은 지난 7. 29~8. 12(15일간, 北韓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대경목사와의 면담 내용임.

주요 면담내용

1. 北韓의 종교활동 參觀 및 교회방문

- 朝鮮基督教徒聯盟 사무실은 평양 봉수교회안에 있으며 각지방에 支部가 있음.
- 家庭禮拜에 2~3차례 참여했는데, 부녀자들이 찬송가를 잘 불렀으며 선전용이란 인상은 받지 못했음.

2. 北韓의 사회생활과 개방화 조짐

- 북한주민은 여행에 제한을 받으므로 교통수단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으며 주로 電氣버스와 지하철등을 이용하는 편임.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平壤驛 구내에서 밤을 새우는 것도 목격했음.
- 호텔등에서는 日本담배와 맥주등이 주로 소비되었으며 日本엔화의 인기가 높음.
- 임수경양의 平壤集會 參加 영향으로 우리 大學街의 運動圈 몸짓과 '우리의 소원' 노래가 대유행임.

- 平壤市内에서도 자주 電力이 약해지며 가로등이 별로 없는 등 電力 不足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상을 받았음.
- 外國관광객들도 平壤市内는 자유로이 다닐수 있었으며 휴일에는 모란봉공원 등에서 Folk Dance를 추는 젊은이들과 가족단위 나들이가 많이 목격되었음.

3. 북한주민의 통일문제인식과 연방제 강의

- 平壤市内 관광중 만난 金日成大學 학생은 「어서 統一을 이루어 金日成수령을 편하게 해드려야 한다」고 대답.
- 숙소인 고려호텔 회의실에서 祖國平和統一委員會 직원으로부터 聯邦制에 대한 강의를 받았음.
『양쪽體制를 공존시킨 聯邦制가 오히려 分斷固着化가 아니냐, 연방수도는 어디로 할거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못했음.

4. 北韓滯留中 便宜提供

- 정부의 승인을 받고 訪北한 첫번째 케이스라는 점에서 北韓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인상을 받았음.
- 朝鮮基督教徒聯盟의 이철, 조길남이 동행·안내했으며 이들은 종교문제를 담당하고 있으나 정치문제도 관여하는 것 같았음.
- 북한체재경비는 僑胞事業總局에서 부담하였고, 同局의 許某가 이산가족문제를 담당하였음.
- 北韓側의 共同宣言文 채택요구를 거절하였고, 金日成동상에의 參拜는 하지 않도록 배려하여 주었음.

임수경 入北관련 문제성 언동시례

다음은 임수경의 入北前·後 문제성 언동을 요약, 평가한 것임.
임수경의 언동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

- 入北後 초기에는 흥분상태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나 ‘국제평화대행진’ 준비 및 진행단계에서 부터는 북한측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면서 북한에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으며
- 남북한을 ‘反統一 對 統一’ 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남한을 외세의존적, 전쟁지향적 반통일세력으로 罵倒하는 반면 북한을 자주적·평화지향적 통일세력으로 일방적으로 찬양하면서
- 앞으로「全大協」의 반미·반체제 투쟁이 북한 및 국제사회주의 세력의 연대속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임수경의 문제성 언동들은 정부의 「全大協」 7월 평양집회 참가 불허방침이 정당했음을 증명하고 있음.

1.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6. 21)

- “엄마 아빠의 딸은 결코 범죄자가 아닙니다. …북한 노선을 追從하는 무분별한 학생도 아니구요. 단지 나에게 쏟아질지 모르는 갖가지 조작된 비난들을 감당해내실수 있을까 걱정뿐입니다.”

* 편지를 쓸 당시와 달리 입북후의 언동은 북한노선 추종일
변도

- “지금 우리의 조국은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역적 노○○가 권좌에 앉아 농민들이 농
약을 먹고 죽어가도… 수많은 선배열사들을 고문과 살인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 철저한 체제비판적 의식을 갖고 입북

2. 평양도착 기자회견 (6. 30)

- “이곳에 전국대학생 대표자협의회 임종석 의장님과 그리고「全
大協」산하 평양축전 준비위원회 전문환 위원장님께서 참여를
하셨으면 굉장히 좋았을텐데 저 혼자밖에 「全大協」에선 참여
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남한의 정권이 바로 반통일세
력이며 眞正 통일을 원하는 자는 좌경 용공세력으로 물리고
있는 것이 남한의 현실입니다.”

* 「全大協」의 평양축전 참가를 불허한 우리정부를 반통일세력
으로 매도하고 좌경세력을 진정한 통일세력으로 歪曲

3. 고려호텔 기자회견 (6. 30)

- “‘평양축전은 오직 사회주의 국가들만의 정치적인 행사’ 우리

들은 이런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학생집회에 참가를 하는 것은 不當하다. …그리고 「全大協」은 남한지역 대표로서 보낼 수가 없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아는 세계청년학생집회는 결코 사회주의 국가들만의 정치적인 행사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全大協」은 전국에 있는 각 대학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총학생회의 모임입니다.”

* 평양축전의 역사와 성격에 대한 일방적 해석

* 「全大協」의 대표성과 평양축전 참가 정당성 強辯

- “이념과 사상과 제도는 다르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의 민중이고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할 조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에 있어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 조국통일 3大 基本綱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상과 이념과 제도를 초월해서 남과 북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조국은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교포 질문에 대한 답변)

* 7·4남북공동성명에 대한 북한측 해석 그대로 되풀이

- “저는 북한에 나의 같은민족인 형제들이 정말 그렇게 조국통일을 渴望하는지는 정말 미쳐 몰랐습니다. 남한에서는 통일은 곧 좌경이고 통일은 곧 용공입니다. …지금 그 미국과 노○○

일당은 통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상하게 미친듯이 發狂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통일이라는 말은, 남한에 있어서의 통일이라는 말은, 해서는 안될말 이런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계신 여러형제들과 그리고 북녘, 남녘의 형제들 우리는, 7천만 겨레는, 통일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但只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현 정권 노〇〇정권과 그 일당 그리고 남한에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 미국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남한은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이 대결하는 곳이고 북한은 일치단결하여 통일을 염원하는 양 해석하는 왜곡된 단순논리

4. 동경주재 특파원(한국일보, 서울신문)전화 인터뷰(7. 2)

- “정말로 잘왔다고 생각한다. 북한에도 한국에서와 같은 민중의 진실한 삶이 있으며 북한에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일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었다.”

* 제한된 人士接觸, 철저하게 안내된 여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를 무비판적으로 受容

- “정부 당국에서는 지난 30일 평양기자회견 내용이 假飾이 아니며 진실이라는 점을 인정, 통일된 조국에서 살 수 있게 배

려해 주었으면 한다. 국민여러분께도 내가 「全大協」대표로毅然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하나의 조국이 되어야 할 평양에서 열리는 축전에 대한민국 학생의 대표인「全大協」이 반드시 참석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길 수 있고, 평화를 사랑하는 평양의 청년학생들에게 남한학생들의 활동상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 자신의 방북이 조국통일 달성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양 錯覺

- “남한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책도 없고 공부할 환경도 안되어 잘 모른다.” (공산주의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 순수한 동기에서 반체제 투쟁을 하고 있으며 공산주의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회피성 발언

5. 인민문화궁전 기자회견(7. 3)

-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전인류의 평화를 옹호하는 세계의 청년 학생 여러분, 지구촌의 가족 여러분, 지금 한반도는 하나의 조국, 하나의 민족이건만 45년간 헤어져 살아왔고 다가운 분단 철조망의 고통으로呻吟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7천만 겨레는 하나된 마음으로 조국통일의 그날을 염원하고 있지만 우리의 자주적 평화통일은 그것을 반대하는 국내외 세력으로

인해 挫折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 평양축전을 반통일세력을 매도하는 투쟁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발언

- “‘반제 연대성, 평화친선, 조선은 하나다.’를 우리와 함께 소리높여 외치던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 만방으로 나의 조국은 두개의 국가가 아닌 하나의 국가의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저희들 남북한 동포는 그 어떠한 사심도 없습니다. 단지 갈라져 살아온 45년간의 한맺힌 분단의 철조망을 넘어 남과북이 만나게된 그 자체로서 하나가 되어야할 한 민족이기에, 한 겨레이기에 서로의 손을 부여잡고 가슴 뜨겁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 평양축전을 민족통일을 위한 행사로 牽強附會한 감상적 논리

- “한반도 남단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천여개의 핵무기· 핵기지 철수, 현재 체결된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통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한간 자주적 민간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세계 청년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 한반도의 긴장, 전쟁위협이 미국의 남한강점에 있다는 복

한논리 그대로 추종

- “국내외에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약 99.9% 정도는 통일조국에 대해서 확신있다 하겠고, 0.00001% 정도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남한은 집권세력을 ‘한중도 안되는 반통일세력’으로 매도하는 북한의 논리를 戲畫的으로 옹호

- “남한 사회에 있어서 감옥은 결코 죄를 짓는 사람만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민족의 자주화 그리고 나라의 민주와 통일을 외치던 분들은 이미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셨고 저는 구속되는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 국가보안법의 존재가 민족대단결과 통일의 障礙라는 북한의 기본논리에 초점을 맞춘 발언

- “지난 1950년에 있었던 한국전쟁 이후 휴전협정을 체결한 당사자는 바로 북한과 미국입니다. 하기때문에 지금도 미국은 한반도 남단에 정치적 간섭과 그리고 여러가지 수입개방을 요구하면서 경제적 侵奪을 하고 그리고 문화적인 침탈까지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남한지역 국군 통수권은 바로 대한민국의 육군참모총장에게 국방부장관에게 있는것이 아니라 주한 미군사령관에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군사적인 자주화도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인 자주도 경제적인 자주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 남한이 미국의 식민지이며 군사기지라고 규정한 북한의
‘제국주의 誅求’ 논리를 적극 지지

- “저는 「全大協」의 어떠한 지도핵심성원도 아니고 단지 전국의 100만 청년학도중의 한사람 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특수하게 어느 조직의 대표자 이런것들이 아니라 바로 전국의 100만 학도의 모습은 바로 저와 같은 모습입니다. 모두가 저와같이 투쟁적이고 그리고 평화통일을 갈망합니다.”

* 남한 학생 전체가 반미·반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양 誇張

* 「全大協」의 전체학생 대표성 강조

- “관문점으로 가는 것은 저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청년학생들과 그리고 가능하면 이곳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남북한 청년학생들과 그리고 7천만 겨레가 관문점으로 향한다면 아마 관문점을 가로막는 자들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북한이 짜놓은 ‘국제평화대행진’ 시나리오에 따라 외국인
의 참여를 촉구하는 유도성 발언

* ‘국제평화대행진’ 준비단계에서 부터는 북한을 단순히 추종하고 있을 뿐아니라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反證

6. 국제대학생 회의(7. 4)

- “남한에는 천여개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수십개의 미군 기지가 전국을 덮고 있다. 또한 한미군사훈련, 공격용 전쟁연습인 팀스피리트 훈련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너무나 크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반도의 통일에 중요한 起爆劑가 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곧 전 아세아의 평화이며 그것은 곧 온 지구촌의 평화인 것이다.”

* 전쟁위협, 통일의 장애가 남한측에만 존재한다는 북측논리 대변

* 이번 행사가 반미·반핵운동의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는 선동적 발언

7. 평화, 군축, 핵무기없는 세계안전센터 제1센터진행 제4분과회의(7. 6)

- “팀스피리트 훈련이라는 것은 공격형 전쟁연습으로써 우리민족에게 있어서, 한반도에 있어서 결코 있어서는 안될 그러한 군사훈련이다. 그러나 팀스피리트 훈련은 매년 지속된다. 그런 가운데서 남북한 교류와 남북한 대화는 결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

- * 팀스피리트 훈련이 남북대화의 근본장애라는 북한의 최근 논리를 그대로 반복

8. 통일문화의 밤 행사(7. 9)

- “북에 와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다 저의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같이 보인다. 그래서 대단히 기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다. 남쪽에 계시는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 언니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 * 북한은 혈육의 정이 넘치는 따뜻한 사회고 남한은 殺伐한 사회임을 암시하는 감상적 대비

9. 김형직 사범대학 방문(7. 10)

- “남한당국으로 부터 극렬 좌경학생, 극렬 용공학생으로 지탄을 받던 우리의 친구 애국학생 남태현 열사가 바로 이곳에서 그리고 방해정 열사가 바로 내가 염원하는 명예학생으로 출석부에 등록되어 매일 매일 북한 학생들과 만남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여러분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열심히 열심히 투쟁하겠다. 여러분의 뜻과 의지는 철조망을 넘어 남한의 청년학생들과 4천만 겨레에게도 반드시 전해질 것이다. 통일된 조국에서 우리 하나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 * 정치공작적 차원에서 대학생들의 반체제 투쟁을 선동하기

위한 북한측의 象徵造作에 현혹

* 투쟁강화 역설을 통해 북한측과 연대성 강조

10. 金日成 綜合大學 방문 (7. 12)

- “조국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지난해 6. 10, 8·15 남북학생회담을 위한 투쟁때 똑똑히 보여주었다. … 이러한 학생들의 투쟁은 남녘땅 전역에서 통일운동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줄기찬 투쟁을 통하여 자신이 이곳에 올 수 있었다.”

* 남한에서「全大協」의 투쟁이 전국민의 염원과 지지속에 敢行된 양 誤導

11. 국제평화대행진 발대식 (7. 20)

- “실로 역사적이고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바로 작년 통일염원 44년 우리가 남과 북의 청년학생들이 백두에서 그리고 한라에서 만나서 8·15 민족해방절에 남북학생회담을 주최하기 위해서 그러한 염원들을 우리는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 북한측이 주선한 ‘국제평화대행진’이 그간 학생들의 투쟁 노력의 결과인 양 誤認

12. 국제평화대행진 출정식 (7. 21)

- “세계평화애호형제들의 지지와 국제연대속에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우리 남북청년학생들의 志向과 業원을 담고 있는 국제평화대행진은 애국과 매국, 통일과 반통일, 평화와 전쟁을 가르는 試金石으로 됩니다.”

- * ‘국제평화대행진’의 의미를 북한의 논리대로 옹호

- * 북한측 통일노력에 대한 국제연대성 강조

- “저는 미국과 남한당국이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진심으로 바라다면 자주·민주·통일의 일꾼들이 백만의 「全大協」학우들을 대표하고 있는 저의 관문점 통과를 무사히 보장할 수 있도록 신변안전 담보를 정식으로 선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 정부가 통과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하에 남한을 반통일 세력으로 매도하기 위한 사전 布石

- “나를 사랑하는 백만의 「全大協」학우들과 남녘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한 저의 식구들이 통일염원을 앞당기기 위한 마음으로 제가 관문점에 도착하는 7월 27일에 관문점까지 나와 저와 함께 행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 * 자신의 환영행사를 앞세운 「全大協」의 반정부 집회 유도

- * 자신의 입북활동을 동정심 유발을 통해 정당화

「해외혁명지도부」의 實體와 親北·反韓團體

북한의 해외공작활동거점인 이른바 「해외혁명지도부」의 활동이 최근들어 표면화되면서 이 조직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국에서 반정부 통일운동을 전개해온 일부 종교인·작가·운동권학생을 비롯해 심지어 현직 국회의원까지 평양으로 유인하고 있는 최근 일련의 공작활동을 통해 북한의 「해외혁명공작조직」의 暗躍相이 온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것이다.

이같은 북한의 대남교란공작은 김일성이 64년2월 로동당제4기8차전원회의에서 대남통일전략의 기본방침으로 제시한 「3대혁명역량강화론」에 기초하고 있다.

「3대혁명역량」이란 첫째 북한자체의 혁명역량, 둘째 남한의 혁명역량, 셋째 국제혁명역량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의 강화를 통해서 대남적화혁명이 승리할수 있다는 것이다.

즉 첫번째 것은 조선혁명의 전국적 범위에서의 승리(즉 대남적화통일)를 위해 정치·군사·경제면에서 북한을 대남공격기지화한다는 것이며, 두번째는 남한의 지하당조직 확대와 무장계급라침투를 적극화함으로써 남한의 정치·경제·사회의 혼란을 극대화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국제적 혁명지원역량을 확보함으로써 주한미국철수 실현과 함께 한국의 국제적 고립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같은 전략방침에 따라 「4대군사노선」을 채택, 군비증강을 촉진하면서 '66 ~ '68년 남한에 「통일혁명당」등 지하당 조직

과 병행, 무장게릴라침투활동을 전개했다. 동시에 제3세계(주로 비동맹권)와 유대강화를 위해 외교역량을 집중하고 해외의 「반한단체」조직에도 주력했다.

또한 이같은 해외혁명공작을 현지에서 이른바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69년 해외공관들을 중심으로 「혁명지도부」를 설치했다. 「혁명지도부」의 주요 임무는 ① 주재국의 혁명공작(비공산국가일 경우) 및 각종 첩보수집 ② 제3국을 통한 대남우회침투 및 각종 반한모략공작 ③ 해외교포와 여행자들의 포섭·납치·암살공작 ④ 현지「레포」(하수인)조직의 운용과 지도 감시 ⑤ 공작금 조달을 위한 밀수작전 등이다.

우리가 흔히 북한의 「해외공작원」이라고 통칭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특수기구에 소속된 자들을 말한다.

현재 북한의 「혁명지도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아시아지역은 일본의 「조총련」지도부, 「버마」의 랭군에 설치된 것은 '83년10월의 아웅산묘지 폭탄테러사건으로 폐쇄철수, 인도의 뉴델리, 홍콩, 마카오 ② 중동·아프리카지역은 이집트의 카이로 ③ 중남미지역은 멕시코「멕시코시티」 ④ 북유럽지역은 스웨덴의 「스톡홀름」 ⑤ 유럽전체의 중심지도부는 동독의 「베를린」 등이다.

「혁명지도부」요원들은 모든 해당주재국의 북한외교관 신분으로 위장하고 있다. 그 직책은 1등서기관에서 3등서기관, 그리고 「아타세」(武官)와 商務官 등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사관 승용차 운전수, 잡역부 등으로 위장하고 있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한때 인도의 「혁명지도부」책임자는 인도주재 북한대사관 1등서기관이었

고 스웨덴의 지도부 책임자는 그곳 북한대사관 승용차 운전수였다.

보통 한 지역의 「혁명지도부」요원은 5명 내지 7명정도이며 인도의 경우 북한대사관원 총30명가운데 지도부요원은 5명이었고 버마의 경우는 대사관원 25명중 지도부요원은 4명이었다.

이들은 일반외교관으로 위장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동반으로 해당지역에 가 있지만 가족까지도 평양의 중앙당 대남공작기구인 「연락부」와 「조사부」 또는 그 상급기구인 통일전선부 요원 성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도부요원의 아내까지도 그 남편과 같이 특수임무에 종사해야 하며 독신자의 경우는 중앙당 통일전선부, 연락부, 조사부 등에서 지정한 현지의 교포여인이나 외국여인과 위장부부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대사관이나 해외무역상들은 혁명지도부의 승인없이 현지에서 어떤 일도 처리할수 없다. 외부에서 대사관 직원이나 무역상사의 실무자를 찾는 전화가 걸려올 때도 그런 사람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하는 것까지 지도부 요원들이 결정한다. 뿐만 아니라 외부의 손님접대는 물론 대사관직원 외출까지도 그 행선지와 시간을 사전에 지도부 요원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출에서 돌아오면 모든 것을 이들에게 상세하게 보고해야 한다.

「혁명지도부」는 상당수의 「레포」를 거느리고 있다. 「레포」란 레포터(Reporter)의 약어로서 현지에서 포섭·고용한 「연락원」·「통신원」·「공작하수인」등을 말한다.

「레포」는 현지 교민중의 학자·예술인·종교인·언론인·저술가·유학생·상인·무직자등 그 성분이 다양하다. 예컨대 '77년7월 프랑스 파리에서 피아니스트 白建宇, 영화배우 尹靜姬부부를

유고의 자그레브까지 유인한 현지교민(李모 예술인 부인), '78년 1월 홍콩에서 영화배우 崔銀姬납북공작에 동원된 李象姬, 王東逸(중국인) 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 가운데 李象姬는 「혁명지도부」가 가장 신임한 당원신분의 A급 「레포」였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혁명지도부」에서 특정인물에 대한 包攝 또는 납치공작을 진행할 때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처음부터 공작대상인물에게 직접 접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반드시 「레포」를 동원, 공작을 진행시켜 성공이 豫見될 경우에 한해서 비로소 혁명지도부에서 공작대상인물을 인수한다.

저들의 이같은 공작수법은 과거의 예에서도 보아왔거니와 특히 최근 徐모 국회의원을 비롯한 종교인·작가·운동권학생 등의 잇단 밀입북과 관련, 길은 疑惑을 자아내고 있다.

북한의 이런 해외혁명공작의 실무총책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원이며 대남사업담당비서인 許鎔이다. 그는 당의 대남공작 최고기구인 「통일전선부」부장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실체는 북한 로동당의 통일정책과 노선을 선전하는 위장평화기구라는 것은 오늘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밖에 로동당의 통일정책선전을 위한 당의 외곽조직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재북평화통일촉진회」등을 비롯, 로동당의 友黨을 가장한 민주사회당·천도교청우당과 종교단체를 가장한 기독교연맹·불교도연맹 등도 許鎔에 의해 관장되고 있다. 또한 해외의 각종 반한·친북단체들도 통일전선책략에 의해 조종하고 있다.

북한의 해외 반한·친북단체는 다양하다. 교포사회에 구성되어 있는것도 있고 중남미·아프리카·서방지역 등의 수교국·미수교국 등에 상호친선명분을 내세워 결성되어 있기도 하다. 여기서 교포사회에 구성되어 있는 친북·반한단체는 표면상 종교·인권문제·사회사업·관광사업 등을 내세운 것들로서 그 모습과 實屬이 일정하지 않다.

이 반한·친북단체의 대표급 멤버는 현지의 혁명지도부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거나 혹은(혁명지도부 미설치지역) 평양의 「통일전선부」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비롯, 「해외동포원호위원회」·「교포사업총국」등과 직접 連結되어 있다.

북한의 해외 「혁명지도부」의 「레포」는 대개의 경우 반한단체의 멤버들 중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常例이다. 최근에 와서 아프리카·유럽·중남미·일본·동남아시아에서뿐 아니라 북미지역에서까지 친북·반한단체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예컨대 워싱턴—뉴욕의 「한국청년연합」(약칭 한청련), 「한겨레홍보원」·「코리아지원회」(KSN), 로스앤젤리스의 「북미주조국통일협의회」(통협), 캐나다의 「이산가족찾기회」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 반한·친북단체들은 북한찬양선전뿐 아니라 해외동포 북한방문, 국제적으로 영향력있는 외국인사들의 방북추진, 외국자본의 북한투자 유치공작의 창구를 맡고 있기도 하고 워싱턴의 모 단체의 대표는 사실상 북한의 「총영사」구실을 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북한은 각급 대남사업기구들을 통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118개국(주로 아프리카·중동·중남미지역의 신생 비동맹권)에 그나라 사람들로 구성된 「조선과 ××국친선협회」·「김일성주체

사상연구소조」·「조선과 ××국친선문화협회」·「김정일지도사상
연구소조」·「조선의 통일노선지지 및 연대성위원회」등 총 1,458
개의 친북단체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내외통신 648호, '89. 7. 14)

北韓의 심연기 경제활동 종합

지난 상반기중 추진된 北韓의 모든 경제과업은 7월1일 개막되는 「평양집회」준비작업과 관련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金日成은 연초 그의 신년사를 통해 『13차 세계청년 학생축전이 평양에서 열리게 된 것은 커다란 경사』라고 한후 여기에 참가하는 대표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온갖 조건과 편의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북한이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意識, 서울올림픽을 凌駕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평양집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얼마나 엄청난 심혈을 기울였는지는 그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여실히 입증된다.

金日成이 발표한 금년도 經濟課業은 「평양축전」과 직결된 人民消費品생산증대부문과 평양시가지 정비를 비롯한 주요 外國人 관광코스의 정비사업이다.

그래서 金日成은 올해를 「경공업의 해」로 지정, 40년이 넘게 일관해온 중공업우선정책을 잠시 제쳐두었고 연초부터 都市經營部를 정무원 산하에 신설, 평양시가지 정비뿐 아니라 원산, 신의주, 개성, 청진등 외국인이 찾아드는 주요도시의 정비작업에 汨沒했던 것이다.

「평양집회」와 무관한 순수한 경제과업으로서 지난해 12월 있었던 노동당 6기14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工作機械 및 전자자동

화공업에 투자를 늘리고 식량생산 증대를 위해 벌리고 있는 각종 농업 건설에 힘을 쏟는 것이다.

지난 4月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89년도 예산내역에 의하면 금년에는 기계공업부문에 지난해 比 16%, 경공업에 13%, 전력, 금속, 채취공업부문에 8%, 농업부문에 7%를 증액할 것이라 했는데, 이는 올해의 北韓예산이 지난해보다 5.2%증가된 335억 5천 7십만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증가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바에 의하면 상반기중 金日成이 제시했던 경제과업에는 별다른 투자가 없었고 북한에서 조달할 수 있는 모든 자금과 자재는 최우선적으로 「평양집회」준비사업에 집중했던 것이다.

북한이 「평양집회」준비에 모든 가용자금과 장비, 자재등을 집중투입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각지역별로 청년돌격대, 청년결사대를 조직, 「평양집회」준비사업장에 보내는가 하면 인민군 현역병까지 집중투입해야만 했던 원인은 한마디로 행사개최기간은 닦아오고 있으나 벌려놓은 공사는 절반수준도 마무리짓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

北韓이 87年初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평양에서 개최토록 유치한 이후 지난 6월30일까지 무려 40억내지 45억달러나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준비작업을 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년초 北韓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들은 「평양집회」준비를 위한 연건평 43만여㎡에 이르는 체육시설, 41만㎡에 달하는 문화

시설, 86만㎡에 이르는 호텔 및 편의봉사시설등 총 260개 대상사업을 벌리고 있다고 했다.

소련당국이 수차례에 걸쳐 지나친 호화행사나 낭비적 행사가 되지 않도록 충고했다고 하고 中國도 검소한 행사가 되도록 종용했다고 외신들이 전하는 것을 보면 北韓은 자신들의 능력을 가늠하지 않고 지나치게 화려한 준비를 해왔던 것이 틀림없다.

연일 발표되는 北韓의 「평양집회」준비사업을 종합하여 평가해 보면 집회개막전까지 개막식이 거행된 「5월1일경기장」을 비롯한 20여개의 체육시설, 5개의 숙박시설, 7개의 문화시설, 2개의 통신시설등 총 131개 대상이 완료되고 北韓當局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105층 류경호텔을 비롯하여 국제공항 확장공사, 평양-개성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등 120개 대상은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은 엄청난 자금과 자재, 또 노동력까지 집중적으로 투입했음에도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뿐 아니라 지난해 초부터 두차례에 걸친 2백일전투, 연일계속되는 「평양집회」준비를 위한 돌격작전에 전주민을 내몰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르러서는 北韓住民들이 더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이 피로해 있었고 이에 따른 불평불만도 크게 일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北韓當局은 가뜰이나 어려운 財政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수립이후 세번째로 北韓의 全勞動者, 技術者, 事務員과 건설현장에 동원된 전문학생, 대학생에게 한달치 임금 또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주었다.

지난 6월중에 지급완료된 특별상여금은 총 6억4천만원(약 3억 달러)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北韓의 월평균 재정지출중 약

20~30%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그런데 北韓은 특별상금 명분으로 임금은 두배로 지불하였으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물공급에 대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보너스에 대한 효과는 거양되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상반기중 「평양집회」와 관련된 건설사항을 제외하고 순수한 경제개발측면의 실적이라고는 그렇게 많지 않다.

기간중 북한이 그들의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발표한 바 있는 상반기 주요경제실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발전소 건설실적부터 살펴보면 북한은 금년초부터 발전소 건설에 상당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金日成은 3월25일 평남 영원군 영원발전소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이 발전소의 조기완공을 지시한데 이어 『날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발전소 건설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2월10일에는 소련의 원조에 의해 건설되는 東平壤火力發電所가 평양시 낙랑구역 현지에서 「국가건설위원장」·「전력공업부위원장」, 평양시 인민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가졌는데, 이 발전소의 시설능력은 평양화력발전소와 맞먹는다는 것으로 보아 50만kW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외에도 금년초 북한은 청천강화력발전소 확장공사를 착공시켰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의 확장공사 내용은 15만kW의 시설능력 증설로 보인다.

지난 상반기 공업부문의 주요성과로서는 평성농기계공장과 평양포장재공장등이 완공되었고 북한최대 석유화학공장인 남흥청년

종합화학공장과 김책제철소의 확장공사가 추진된것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4월2일 조업식을 가진 평성농기계공장은 중형급 농기계의 생산보장을 위해 각도급행정단위에 1개씩 건설기로 한 방침에 따라 건설된 것으로 주요 생산품은 모뜨는 기계, 모심는 기계, 비료뿌리는 기계등 10여종의 연결농기구라 한다.

평양포장재합영회사는 지난87년도 일본의 조총련계 西東京商社와 평양식료연합기업소간에 합작으로 설립한 골판지생산공장으로 현재의 생산능력은 연간 약 2백만매로 추정되나 앞으로 4백만매를 생산할 계획이라 한다.

남흥청년화학공장 확장공사 내역은 나프타 생산능력을 현 3만톤에서 6만톤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하여 고압폴리에틸렌 2만톤, 폴리스틸렌 3만톤 생산능력 조성공사이고 김책제철소 확장공사는 강철생산능력을 20만톤 증가시키는 공사이다.

상반기중 농업부문의 주요과업은 서부지역에 대규모 관개공사 사업이 일부 완공되고 새로운 공사가 착공되었다는 것이다.

기간중에 완공된 관개사업은 지난 86년에 착공되어 만 3년여에 끝난 서해갑문으로부터 온천군을 거쳐 증산군 석다리에 이르는 80km구간의 관개수로공사이다.

새로 착공했다는 관개사업은 서해갑문을 水源으로 황해남도 벽성, 용진, 강령군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6백여리(240km)에 이르는 대규모 신설공사와 은파호에서 해주지구 연백평야에 이르는 120km의 기존관개망 보수·정비공사이다.

끝으로 기간중에 발표된 수송부문 실적을 보면 일부 고속도로의 신설공사가 완료됨과 동시 새로운 고속도로의 착공식이 있었

고 단천—만덕간의 전철화공사, 백두산 천지주위에 관광용 케이블카 설치작업추진 등이다.

공사가 완공되었다고 선전하고 있는 고속도로는 원산에서 금강산에 이르는 114km구간의 고속도로인데, 이 공사는 노폭 7m의 기존도로를 노폭 12m로 확장하면서 직선화시켰고 평원고속도로와 연계시켜 금강산일대의 외국인 관광객을 수송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새로 착공된 고속도로는 평양에서 자강도 회천시에 이르는 120km구간이고, 전철화공사가 완료되었다는 단천—만덕간은 함경남도 일대의 유색금속 수송철도로 구간거리는 65.5km에 달한다.

(내외통신 649호, '89. 7. 21)

北韓의 核武器 개발능력 평가

1. 核研究實態

- 北韓은 '50年代에 원자력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원자력 개발을 위한 연구기반 조성.
 - 1955. 4. : 原子 및 核物理學研究所 설치 결정
(과학원 제2차 총회)
 - 1956. 2. : 朝·蘇聯合 核研究所 組織에 관한 협정체결
(모스크바)
 - 1956. 9. : 朝·蘇 原子力協定 調印
 - 1959 : 高周波 質量分析器 製造
 - '60년대에는 연구기반 확충 및 우라늄광 개발 등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
 - 1961 : 寧邊에 原子力研究所 착공
 - 1961~67 : · 약3,000명의 과학자를 소련에 파견 研修
· 金日成대학과 金策공업대학에 核物理學 및 核工學科 設置
 - 1963. 10 : 방사성 동위원소를 흥남비료공장의 암모니아 합성 및 과인산석회 생산공정에 도입.
 - 1964 : 함흥, 응기, 해금강일대에서 우라늄광 발견
 - 1965 : 소련으로부터 1,000Kw 級 原子爐 도입설치
- * '70년대에 들어와서도 핵물리학자들을 계속 소련의 『두

브나』 핵연구소에 파견·연수

- '80年代에 들어와서는 原子力의 實用化에 努力 傾注
 - 1980~86 : 寧邊에 原子爐 제2호기 (3만Kw급) 설치
 - 1985. 12 : 소련과 원자력발전소 (176만Kw급) 건설에 합의
*90년 동해안 건설예정
 - 1985~(90): 寧邊에 原子爐 제3호기 (20만Kw급) 건설착공
 - 1985 : ·평산 우라늄광 개발 (可採量 400만톤) 및 原子爐 燃料제련·가공공장 착공
·핵연료 再處理工場 (年間 플루토늄 11Kg 생산 능력) 착공
 - 1986. 12 : 政務院에 원자력공업부 신설

2. 核武器 開發能力 判斷

- 일반적으로 核武器 개발은 관련 전문인력과 기술, 제조에 소요되는 원료확보와 개발경비의 4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함.
- 이와같은 4가지 기준에서 볼 때 北韓은 이미 核武器開發 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 專門人力 : 核物理學者 및 관련기술자 3,000여명 확보 (박사학위 소지자 25명 포함)
 - 關聯技術 : 原子爐 2~3호기 및 관련시설 자체기술 건설로 상당한 기술 축적

- 核武器 製造原料 : 기존 原子爐와 原子力발전소 추출 核廢棄物 이용, 年間 11Kg의 플루토늄 생산가능
* 나가사키 투하原爆 : 4.5Kg 소요
- 開發經費 : 現軍事費 (42.2억불) 일부 조정으로 가능
* 20KT級 (나가사키級) 10發 생산에 1,100만불 정도 所要

綜 合 評 價

- 그간 日本 社會黨과 東北亞 非核·平和地帶 창설에 합의 ('78. 12)하는 등 東北亞 및 한반도 非核化 운동을 계속해 온 북한이 가공할 核武器 개발을 내면적으로 은밀히 추진해 온 사실은 북한의 야누스적인 二面性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음.
- 단순히 核武器 개발능력만을 고려한다면 북한은 향후 5~6年 内に 核武器 제조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이같은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것은 북한이 아직도 核擴散禁止條約 (NPT)의 가입(1985)에 따른 安全協定 締結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어 2基의 研究用 原子爐를 제외하고는 國際原子力 機構(IAEA)의 安全保護對象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IL-28, MiG-23, MiG-29, Frog-5, Frog-7, Scud B와 같은 核武器 投發手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임.
- 비록 우리의 전반적인 核技術能力이 북한보다 4~6年 앞서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이기는 하나 북한의 核武器 개발능력 확보는 우리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될것인

바,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아래 中·蘇를 통한 북한의
核武器 開發 意圖를 억지해 나가야 할 것임.

亞·太地域에 있어서의 새로운 秩序

다음은 韓國國際關係研究所 (崔鍾起 教授)가 主
催한 第18次 國際學術會議 ('89, 7.4 - 7.6)『亞
·太地域의 새로운 秩序』發表論文 중에서 蘇聯
學者(4人)의 發表內容임.

1. 蘇聯의 세계경제 편입과 亞·太地域 국가와의 경제협력 문제
점 Mvan S. Korolyov 教授 : IMEMO 副所長)
 - 고르바초프가 추구하고 있는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은 정치·경
제·사회 및 국제관계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
음.
 - 특히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국제경제 체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 亞·太地域 國家와의 關係도 重視하고 있음
 - 현재의 국제경제 질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
으며, 이는 계속 변화되어 再編되어 갈 것으로 보임.
 - 科學技術의 발달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새로운
수요와 機會의 變化에 따라 경제구조의 再編成이 불가피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또한 國家間的 마찰과 經濟紛爭, 특히 資本主義 中心部 國
家群과 周邊部 國家群間에 현격한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

고 국제 노동·분업 구조등이 변화하고 있음.

- 국제경제 협력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국제기구의 역할증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소련의 對外經協關係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亞·太地域에서 소련의 경제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 고르바초프의 '86년 블라디보스톡 演說은 極東開發을 위한 前提條件에서 파생된 것으로
 - 이의 발전을 위해서는 計劃·統制 經濟體制의 변화, 對外經濟體制의 改編등이 필요함.
- 蘇聯의 極東地域은 천연자원의 寶庫로서 이의 개발을 위한 주변지역 국가, 특히 韓國과의 經濟關係發展이 매우 중요함,
 - 韓國과의 관계 발전은 亞·太地域 國家와의 경제협력 증진의 전략 범주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으로서
 - 兩國關係는 過大 혹은 過小評價되어서는 안되며 기회의 정당한 평가가 필요함.

2. 태평양 지역에서의 軍事的 對決構造에 대한 蘇聯의 견해 (I. S. Lvanov 박사 : 蘇聯 IMEMO 태평양문제연구소장)

- 현재 태평양지역의 군사적 對決構造는 매우 복잡한 구상을 띠고 있음.
 - '80年代 이후 各國의 국방비 증가율은 2.9~4.9%를 기록하고 있고

- 美國은 印支半島에서의 철수이후 對韓國 군사·경제적 결속으로 對蘇 對決構造에 더욱 큰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 日本의 해·공군은 美國의 공격적 해상활동의 지원하에 그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 한반도의 상황은 美·蘇 대결구조와 연결되어 있고, 그 자체도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음.
 - 갈등이 현실화될 경우 美國의 개입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 韓半島의 안정은 태평양 全域과 관계되어 있으며
 - 美國은 南韓 영토내에 핵무기 보유를 공식으로 인정하고 있고
 - 駐韓美軍의 존재에 따라 미군사령관이 한국군의 지휘권을 統括하고 있음.
- 南·北韓의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韓國은 美軍이 없다하더라도 北韓을 군사적으로 능가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수 있게 되었음.
 - 陸軍의 경우 北韓이 숫적으로 우세하지만
 - 空軍의 경우는 韓國이 質的으로 우위를 확보하고 있고
 - 海軍의 경우에 있어서도 韓國은 화력과 기술지원, 선박톤수에 있어 北韓을 2배이상 凌駕하고 있기 때문에 北韓의 陸軍을 無力化시킬 수 있을 것임.
- 蘇聯의 극동주둔 陸·空軍은 中國을 주로 겨냥하고 있지만 海·空軍은 美國과 日本을 主對象으로 하고 있음.
 - 이렇기 때문에 상호신뢰 구축문제와 소련군의 감축문제가 별개의 것으로 취급되고 있음.

3. 國際法과 새로운 秩序 (Lgor I. Lukashuk 教授 : 蘇聯科學院國家·法學研究所)

- 科學·技術革命으로 세계는 發展·災殃의 兩面性을 동시에 가지게 되어 國際關係 調整의 급격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역사적으로 볼 때 舊時代的 思考와 各國의 개별정책은 兩次 大戰과 冷戰을 야기해 왔기 때문에
 - 오늘날 전세계의 국가는 국가간 관계의 再規定과 지구전체의 새로운 질서의 확립을 요청하고 있음.
- 고르바초프가 제시한 「새로운 사고」는 思辨的인 概念이 아니라 인류를 구할 수 있는 행동철학으로서 核廢棄·非暴力世界를 骨幹으로 하고 있음.
 - 그 전제는 「對決」의 概念을 협력정신과 상호의존의 概念으로 바꾸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 이는 국가적 이익과 전 인류적 이익사회의 상호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야기하고 있음.
- 全 地球的 차원의 安保概念은 現存하는 평화유지활동을 지속하는 바탕위에서 성립되어야 할 것임.
 - 國際聯合에 대한 더 높은 실질적 지위와 現存 국제법 질서의 존중이 필요하며
 - 國際聯合의 후원하에 軍축문제와 정치적 위기의 평화적 조정역할을 담당할 국제감시기구의 설립이 요망됨.
- 세계각국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의함.
 - 태평양 지역 해군함대의 활동을 削減하고
 - 인도양 지역을 平和의 場으로 전환시키며

-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력을 合理的 水準으로 減縮하고
- 이를 위한 非政府간 조직의 빈번한 접촉을 기대함.

4. 亞·太地域에서의 蘇聯에 대한 國際的 輿論 : 日·蘇關係를 中心으로 (A. A. Kirichenko 博士 : 蘇聯 IMEMO 行政處長)

- 국제관계에 있어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계 모든 국가의 참여, 특히 亞·太地域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實際的 조치 강구가 요망됨.
 - 이를 위해서는 평화·정의·신뢰의 문제에 있어 세계의 이익이 私的利益에 우선되어야 하며
 - 국가·개인의 이익이 전체인류의 이익에 背馳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 政策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정세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결국 蘇聯位相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임.
 - 蘇聯의 국제사회에서의 신뢰감 提高를 위한 言行不一致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 아직까지도 蘇聯의 변화에 대해 不信과 懷疑에 가득찬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음.
- 亞·太地域에 있어서의 蘇聯에 대한 국제적 輿論은 日·蘇關係를 표본으로 하여 살펴 볼 수 있을 것인 바, 이는 終局的으로 兩國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국제환경에 관련되어 있음.

- 日本人의 약 82%가 蘇聯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 이에 대한 이유로는 北方領土問題未解決, 蘇聯의 軍事力, 共產體制에 대한 反感등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蘇聯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로는 군사강대국, 독재체제등을 열거하고 있음.

NEW TIMES 「韓半島 情勢」記事 分析

1. 概 要

- 蘇聯共產黨 中央委 對外弘報機關誌 「New Times」는 最近號 (7.12)에서 『韓半島 情勢』題下의 記事를 통해 韓半島 問題에 대한 南北韓間의 자주적 해결원칙을 제시하면서,
 - 韓半島 情勢에 대한 蘇聯의 새로운 인식
 - 南北韓間의 군사적 대결상대 완화를 위한 단계적 방안
 - 韓·蘇 經協方案 등에 관해 보다 현실적·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음
- 同 「New Times」는 정치·이념 분야를 주로 취급하는 시사주간지(10개국어, 60萬部)로서 蘇聯 當局의 정치외교정책방향을 가능할 수 있는 主要端緒를 제공,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때, 最近 蘇聯이 「두개의 韓國」이라는 현실인식위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방안』을 내걸고 보다 적극적인 개입의도를 구체화하고 있어, 주변국 및 북한의 반응이 예의주목되고 있음.
- ※ 同 記事는 Bogaturov(蘇聯科學院 美·加研究所 研究員:歷史學)에 의해 執筆된 것임. 광태환 (칸터기大) 教授는 작년 7월말 모스크바 訪問時, Bogaturov를 그의 연구실에서 만나, 同 記事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英文論文을 제공한 바 있다고 함.

2. 記事內容의 主要 要旨

◀ 韓半島 情勢에 대한 蘇聯의 認識 ▶

- 조선민족의 두개국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조선민족의 일이다.
- 오늘날 한반도에서의 소련외교의 과제는 중국적으로 남북한 관계를 완전정상화 함으로써 잠재적 분쟁의 위험이 있는 상황을 안정되도록 조장하는 일이다.
이것은 조선의 평화통일을 향한 진지하고 건설적인 협상을 위한 기본 선행조건이다.
- 수십년간에 걸친 상호이간과 의심때문에 현재의 협상속도는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되고 있다.
- 남북한 상황의 정상화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쌍방간의 대화에 달려있으며, 이와 동시에 한반도 상황의 해결과정을 국제화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여건은 성숙되어 있다.

◀ 韓半島 緊張緩和를 위한 段階的 方案 ▶

- 한반도 문제에 관한 미·소의 장기적 이익이 근본적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남북한 및 전체적인 한반도 상황에 관한 미·소 어느 일방의 조치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태도를 버리고, 모든 건설적 제안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 소련 및 북한의 관계부서 전문가 및 대표들과 미국 및 남한의

관계부서 전문가 및 대표들로 여러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한 방식이다. 이 위원회에서는 남·북한 직접대화를 활성화시킬 조치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가장 이상적인 조치는 북한에 대한 소련의 무기공급 중지와 주한미군의 감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구축 조치들이 이루어지면 한반도를 비핵지대화하고, 군축에 관해 유럽·소련 및 미국간에 도달한 것과 같은 상호이해를 아·태지역에 확대하는 문제를 眞摯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또한 소련과 미국간의 정상회담이나 기타 고위급회담에서 한반도 또는 아시아에서의 지역적 분쟁에 언급한 특별성명을 채택하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성명에서는 소련과 미국이 기존의 정치적 실체들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이 지역의 모든 나라들과 공개적 대화를 하고 나설 용의가 있음을 천명할 수 있을 것이다.
 - 분쟁을 해결하고 통일협상을 시작할 기반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조치방안은, 모든 당사국이 참가하는 한반도 국제회의를 마련하는 일이다. 남북한 대표가 포함되는 이 회의에서는 한반도 군사정세의 단계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또한 무장분쟁을 예방할 국제적 보장문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첫 단계로, 소·미·중 그리고 그밖의 나라들이 예를들면 유엔 후원하에 남북한 불가침 조약의 보장자가 될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남북한에 대한 군사원조를 제한·중지하는 문제, 남북한 대표들도 참가하는 『奇襲防止委員會』를 설립하는 문제, 신뢰구축조치의 구체화문제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다음 단계는 비무장지대 양측에 이지역내의 모든 공격용 무기와 핵무기를 철수하고 군사훈련을 금지하는 중립지대를 만드는 일이다.
- 마지막 단계는 남북한 군사력의 균형감축과 한반도로부터의 미군병력의 점진적 철수이다.
이와 병행하여 남북한 지도자들은 민족적 화해와 통일의 방향으로 관계개선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 韓·蘇 經協方案 ▶

- 한국은 70년대의 일·중 경협관계처럼 소련에서 중요한 경험파트너가 되고 있다.
- 70년대 일·소 경협모델을 한·소 경협모델로 하자는 일부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한·소경협은 경공업·식량산업·제약·무역·관광개발등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巨創한 것보다는 작지만 성과가 빠른 사업계획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分析 및 評價

① 본 記事內容에서 드러나고 있는 蘇側의 對韓半島 입장을 정리해 보면,

- 蘇聯은 중전의 對北韓 一邊倒的 支持혹은 『韓半島 問題 當事者 解決論理』라는 傍觀的·消極的 태도에서 크게 벗어나, 최근 한반도 문제에 대한 周邊關聯國들 (특히 中·蘇 및 美·蘇間에)의

이해관계가 일단 일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되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이러한 인식위에서 蘇聯은 『韓半島 問題의 國際的 解決努力』과 『當事者 對話』를 동시 並行推進함으로써, 지지부진하고 비생산적인 남북대화를 보다 활성화시켜, 제 1단계로 蘇聯의 한반도 관련 당면목표인 『南北韓 關係 正常化』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것임.
 - 제 1단계 『南北正常化』目標가 달성된 후 제 2단계 과제는 『平和統一』문제로서, 이는 관계정상화가 달성된 후 남북당사자간의 자주적 대화를 통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단계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임.
- ② 이러한 蘇聯의 『南北韓 關係 正常化』 목표달성의 전제조건이 되는 『緊張緩和』의 구체적인 방안을 요약해 보면,
- 첫째, 南·北韓 및 美·蘇의 대표가 참여하는 『常設委員會』구성
- 蘇聯의 對北韓 무기공급 축소, 美國의 駐韓美軍 감축의 동시 실행
 - 『韓半島 非核地帶化』 논의
 - 美·蘇間에 頂上會談 혹은 高位級 회담을 통해 『交叉承認 問題에 관한 特別聲明』채택
- 둘째, 南·北韓 및 관련당사국들이 참여하는 『國際會議』구성
- 美·中·蘇등 몇개 국가들이 유엔 후원하에 南北韓 武力不使用 條約을 保證
 - 南·北韓에 대한 군사원조의 제한 및 중지문제 논의, 奇襲攻擊 防止와 信賴構築制度 마련

- 비무장지대 兩側에 緩衝地帶 設置, 공격용 무기 및 核武器의 철거, 군사훈련 금지
- 南北韓 군사력 균형감축, 美軍의 단계적 철수

셋째, 이러한 조치들과 함께 南北韓間의 和解와 統一을 위한 회담을 계속, 관계개선 추구

- ③ 蘇側의 금번 제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한반도 문제를 종전의 『當事者 解決論理』로만 방치해 두지 말고 『韓半島 平和 共存』을 희망하는 주변관련국들이 참여하는 『국제협의체』를 통해 실마리를 풀어나가되, 『當事者 解決』노력도 동시에 並行시켜 나가자는 것임.

이는 작년 9월 고르바초프가 「크라스노야르스크」演說에서 제시한 극동지역 군사적 대치상태 완화를 위한 『多國間 會談』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서, 盧大統領이 유엔演說(88.10)에서 提議한 『東北亞 平和協議會議』 구성제안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④ 그러나 이처럼 종전의 『當事者 解決論理』로부터 벗어나 『韓半島 問題의 國際化』를 주장하면서, 韓·蘇 관계발전에 상응하는 美·日의 對北韓 접촉을 조장하는 蘇聯의 저의는, 전략적으로 蘇聯의 對亞·太 平和攻勢를 통한 적극진출의 발판을 『關係正常화된 두개의 한국』과 『韓·蘇間의 經協』에서 모색해 보려는 目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 ⑤ 어쨌든, 금번 蘇側의 제의가 시기적으로 美·蘇 데탕트, 中·蘇關係 정상화, 그리고 美國朝野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본격 擧論되고 있는 시점과 일치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蘇側의 『韓半島問題의 國際化』제안은 최근 한반도 정세

에 관한 면밀한 분석의 결과로서, 혹은 美·蘇 當局間의 은밀한(원칙적) 합의에 따라 제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향후 주변 관련국들의 반응을 銳意 주시해 보아야 할 것임.

특히 北側에게는 이러한 蘇側의 『國際化』論理가 『對外開放』과 『南朝鮮 解決論理의 拋棄』·『交叉承認』등을 중용하는 본격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으며, 이에 대한 北側의 反應 여하가 注目되지 않을 수 없음.

- ⑥ 韓國으로서는 금번 蘇聯의 提案內容을 肯定的으로 검토, 『統一問題의 國際化』추세에 대비하고, 『北韓의 開放化』를 誘導하는 방안으로 활용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평가됨.

—時事資料—

統一教育 ('89-4)

1989年 9月 日 印刷

1989年 9月 日 發行

統 一 研 修 院

(電話 236-1749, 234-4103)

印 刷 和 盛 文 化 社

(電話 278-3421, 3422)
